

명품백 딜레마... 검찰, 김 여사·최재영 모두 불기소 방침

‘받은 사람 불기소, 준 사람은 기소’
상반된 수심위 결과에 검찰 곤혹
수사팀 내선 “무혐의 재론 여지없어”
중앙지검장, 오늘 총장에 관련 보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 24일 ‘나를 처벌해 달라’는 최재영(김건희 여사 명품백 제공자)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15명의 수심위원 중 과반인 8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기소의 견을 냈다. 지난 6일 수수자인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수심위와는 정반대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선 ‘받은 사람은 불기소, 준 사람만 기소하라’는 모순된 심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무혐의 불기소’란 당초 수사 결론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 사안을 두고 18일 만에 수심위 결론이 정반대로 뒤집힌 것은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이 갈렸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제공자를 처벌하려면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이날 수심위에는 최 목사 대신 법률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혐의별 수심위 판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종료 후 권고안 도출,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김건희 여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9월 6일)	혐의	검찰 판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없음	불기소 권고 (기소·불기소 의견 및 15명 위원 참석 여부 비공개)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앞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최재영 목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9월 24일)	혐의	검찰 판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없음	기소 권고 (기소 8명, 불기소 7명)
명예훼손		불기소 권고 (기소 1, 불기소 14)
주거침입		만장일치 불기소 권고 (불기소 15)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만장일치 불기소 권고 (불기소 15)

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가 참석해 ‘직무관련 청탁이 있었으니 기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에게 건넨 300만 원가량의 명품백이 지인인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던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위한 선물이었다는 것이다.

류 변호사는 특히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자문을 자처하며 친분 관계가 형성됐

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구제적 청탁이 없어도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는 것은 ‘둘의 관계성 자체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인 것처럼, “통일운동을 하는 최 목사와 영부인 역시 그 관계 자체에서 직무관련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최 목사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수심위에서) 직무관련성과 청탁이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며 “국민은 김 여사

의 혐의를 부정부패로 알고 있는데, 검찰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심위에서 “명품백 선물 시점(2022년 9월)엔 통일TV 송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는데, 미래에 혹시라도 송출이 중단될 것을 걱정해 미리 청탁용 선물을 줬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창준 전 의원에 대한 국정자문위원 임명 요청

에 대해선 “국정자문위원이란 직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청탁이 이뤄질 수 있냐”고 말했다.

두 사람의 직무관련성에 대해서는, 최 목사가 김 여사의 선친과 고향이 같으며 접근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려면 공여자·수수자 모두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최소한 김 여사는 단순히 만남을 위한 선물로만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검찰 주장에 일부 수심위원들은 “대통령은 정부의 모든 공적 업무를 관장하는데, 최 목사와 친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냐” 등 이견을 보였다고 한다.

상반된 수심위 권고안을 받았지만 수사팀이 당초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한다. 수심위 권고안은 강제력이 없고, 수사팀 내부적으로 김 여사의 무혐의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오히려 법리와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의 최종 의견을 바탕으로 26일 검찰총장 주례보고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우·양수민 기자

야당 “김 여사도 기소하라” 검찰 압박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처분을 권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정창대 법제사법위원회장은 25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명품

백을 청탁용으로 줬다는 최 목사를 기소하면서 그걸 받은 김 여사는 기소하지 않는다는 게 있을 수 있냐”며 “최 목사도 기소돼 처벌받겠다는 거니, 김 여사 쪽도 ‘나도 기소해야’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 장관이 “수심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이 있다”고 답하자 정 위원장은 “수심위에서 기소하

라 그러면 기소하는 게 맞다”고 압박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최 목사와 김 여사를 모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올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별도의 논평이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이날까지 국민의힘에선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반박하거나 해명하는 취지의 공개 발언도 나오지 않고 있다. 한

원내 지도부는 “반박하면 오히려 관심만 끌게 될 것”이라며 “굵어 부스럼”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 국회도 방관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이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민심에 맞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김 여사가 포함된 국

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여당 퇴장 속에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도 불렀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도 ‘노태우 비자금’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창훈·성지원·강보현 기자

▶ 1면 ‘엑소더스’에서 이어집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미국 내 생산 업체에만 해당된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상품을 제조하지 않으면 상당한 관세를 내게 된다”며 “관세는 듣기 좋은 말(music to my ears)이지, 내가 듣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는 공급망 확보에 방점을 둔 민주당, 자국우선주의에 무게를 실

은 공화당 중 어느 쪽이 집권하더라도 미국 현지 생산 확대는 불가피한 ‘트렌드’로 보고 있다.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원천기술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반도체 등에 대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생산 거점 자체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미국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은 명분이나

근거가 약하다”고 했다.

반대로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에 따라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 예상도 나온다. 현지에 진출한 기업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는 사실상 보조금 혜택으로 해외 기업을 유치했지만, 정작 세제나 규제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고 이미 세계 1위 규모로 대거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에 과격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대선 주자인 카말라 해리스 후보의 애리조나주 텃밭의 선거 캠프 사무실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엑시오스가 24일 보도했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캠페인을 위해 27일 애리조나를 방문할 예정이다.

텃밭 현지 경찰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해당 사무실이 공격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밤에도 해당 캠프 사무실 유리창에 비비탄 내지 공기총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발생했다. 엑시오스는 “트럼프 후보에 대한 암살 시도 및 선거를 둘러싼 공격적인 언행 등으로 대통령 선거의 주변에 정치적 위험이 점점 더 드리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워싱턴 날씨 (°F)

9월 26일(목) 80~71

27일(금) 73~71	30일(월) 75~63
28일(토) 84~69	1일(화) 75~62
29일(일) 72~65	2일(수) 68~52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싱글홈 지하 렌트 월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주택, 드라이어

BURK 타운홈 3층 END UNIT

특정 \$660,000

SOLD

임마누엘 홈힐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gd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탈북자들 성원하기 위해 함께 행동”

북한 이탈자 구조의 날 행사
자유북한연합 등 24일 개최

자유북한연합 수잔 솔티 회장이 주최한 ‘북한 이탈자 구조의 날’ 행사가 지난 24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9월24일은 중국이 1951년도 스위스 난민 협약에 서명한지 42주년 되는 날이다. 이날 열린 행사는 중국이 난민 협약 가입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함으로써 해당 조약을 위반하고 있음을 고발하는 상징성으로 특히 의미가 있다.

참석자들은 이날 오전 워싱턴 DC 소재 링컨 기념관 앞에서 ‘통일 광장 기도회(이종인 대표)’ 행사를 갖고, 수잔 솔티 회장과 한미국가 조찬기도회 서욱자 이사장, 탈북자, 인권 운동가들과 함께 중국 대사관 앞으로 이동해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하는 탄원서를 전달하는 등의 행동을 감행했다.

이와 더불어 참석자들은 중국 대사



참석자들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관 앞에서 촛불 시위와 함께 강제 북송당한 탈북자들의 사진, 이름을 부르며 이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다시 연방의회 사무처 빌딩으로 이동해 국무부 관계 대표들을 만나 탈북자들의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서욱자 한미 국가조찬기도회 이사장은 “그 어느

한국인 보다 북한 동포를 더 사랑하는다는 솔티 회장을 곁에서 지켜보며 그의 순수한 열정과 사랑에 감동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이사장은 “근래에도 계속해서 탈북인들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돼 처형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 가는 처참한 소식을 듣는다”며 “어서 남북통일의 날이 오기만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김윤미 기자

울소브룩스 “탈세 사실 몰랐다”

매릴랜드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안젤라 울소브룩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군수(민주·사진)가 부당한 세금공제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으나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변명했다. 그는 “CNN이 내 재산과 관련된 두 건의 부당 세금공제 사실을 보도하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CNN의 보도에 의하면 울소브룩스 군수는 10년 넘게 거주주택에만 국한된 홈스테드 세금공제를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워싱턴 DC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고령자 공제를 받아왔다.

울소브룩스 군수는 53세에 불과하지만 고령자 공제를 통해 재산세를 절반이나 줄였다. 그는 허위 세금공제 신청을 통해 워싱턴DC 주택 재산세를 2005년부터 2017년 사이 모두 1만4천달러 절약했다.

고령자 공제는 해당 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고령자만 대상으로 하지만, 울소브룩스 군수는 이 주택에 거주하지도 않았다. 그는 1995년 이후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 거주해 유권자 등록을 하고 거주해 왔다.



울소브룩스 군수는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주택을 구입한 후 텍스 크레딧 공제 사실을 트랜스퍼

트랜스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DC 소재 주택에 대해서도 “할머니 소유 주택을 이전받고서 남아있는 모기지를 납부하다가 2018년 매각할 때까지 고령자 공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울소브룩스 군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만큼, 부당하게 수령했던 세금공제액을 계산해 카운티 정부와 DC 정부에 납부하겠다”면서 “이미 두 지역정부 관계자에게 문의해 이 문제를 쉽게 시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화당 후보로 맞서는 래리 호건 전 주지사 캠프에서는 “카운티 군수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법 상식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다”고 공격했다.

김옥채 기자

VA 살인범 보석금 단돈 2500달러 논란

법원이 살인사건 용의자에게 무담보 보석금 2500달러를 받고 석방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버지니아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토) 저메인 앤트워니 루이스(25세, VA 스프링필드 거주)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용의자는 이날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아웃리치에 위치한 ‘노닉 소프트’ 세차장에서 열 두만 밀러(54)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자신의 차량에서 총기를 꺼내 살해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러는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사망하고 말았다. 피해자와 용의자는 일면식도 없었으며 말다툼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당국은 용의자를 체포하고 2급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논

검찰 이의신청도 기각



후할 경우 1급 살인혐의로 올라갈 수 있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윌리엄 코빙턴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법원 판사는 용의자에게 2500달러 무담보 보석금 판결과 재판일자 출두를 서약받고 석방해 버렸다.

에이미 애쉬워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검사장은 “보석금 재판에서 석방불가를 청원하고 상급법원인 순회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보석

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사의 보석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용의자는 지난 5월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모처에서 총기로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인물임에도 판사가 보석 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 우려하는 주민이 많다.

자신을 ‘루히 V’라고 밝힌 피해자의 동거 여성은 “살인범이 법원에 출두하겠다는 서명 하나만 받고서 석방될 수 있다는 사실에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낀다”면서 “범인이 길거리를 활보하며 또다른 범행을 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척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경합주 투표제한 법률 선거 영향 미칠까

조지아 등 7개주 관심

오는 11월 대선 조기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합주의 각종 투표제한 법률이 선거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재 7개 경합주(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 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의 여론조사는 박빙 차이를 이어가고 있으며 조사 기관에 따라 그 결과가 엇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

미시간주는 펜데믹으로 임시적으로 허용했던 우편투표와 조기투표 확대정책을 영구법률로 확정하고 펜실베이니아주가 법원 판결로 기존 선거법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애리

조나, 조지아, 노스 캐롤라이나주는 조기투표와 우편투표를 제한하고 유권자 아이디 확인법률을 더욱 강화했다.

비영리단체 투표권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이후 50개 주의회와 지역의회에 상정된 투표권 제한 법안은 모두 6450개에 이른다. 이중 300여개 이상이 통과돼 이번 선거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

조지아주는 새 선거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우편투표 기간을 크게 줄였으며 투표시 ID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우편투표 드랍 장소도 크게 줄여 놓았으며 비영리단체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도 우편투표를 독려하는 편지 등을 발송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박세용 기자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니!

보험에 관한 일은 선택 - 오니화재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강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2 최신행 X-Ray 완비

3 교정 및 물리치료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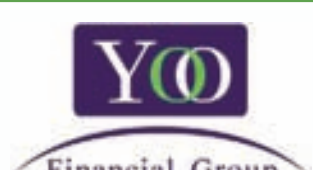


축

창간 23rd 기념



늘 동포사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밝고 따뜻한 신문사,
워싱턴 중앙일보의 창간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워싱턴 지역사회와 한인동포들을 위한
언론사로 성장하시고
무궁한 발전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좋은 회사
유 파이낸셜 그룹

TEL. 703-961-1088

VA 5900 Fort Dr. Suite 407 Centreville, VA 20121

NC 7320 Six Forks Rd. Suite 201 Raleigh, NC 27615



한인 연방 후보들 근소한 차로 뒤져

미셸 스틸·데이브 민
오차 범위 내 접전중

연방 하원 3선의 미셸 스틸과 초선에 도전 중인 데이브 민 후보가 상대 후보와 지지율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 격차는 모두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실제로 우위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USC, 캘스테이트 롱비치, 캘폴리 포모나가 공동으로 지난 14~21일 남가주 주요 경쟁 연방 하원 6개 지역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틸 후보(45지구)는 43.3%의 지지율을 얻었다. 민주당 데릭 트랜 후보는 44.8%를 보였다.

데이브 민 후보(47지구)는 총 42.5%를 얻었다. 공화당 스캇 보 후보(46.2%)에 비해 약 4%포인트 뒤지고 있다.

표심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비율은 10%를 상회한다. 45지구 유권자 중 총 11.3%, 47지구에서는 10.1%가 아직 찍을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흥미로운 것은 같은 여론조사에서 45지구 내 애딕 슈프 민주당 연방 상원 후보가 공화당 스티브 가비 후보를 6.8%포인트 차이로 리드하고 있으며, 대선에서는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8.3%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있다.

이번 여론 조사에는 45지구에서 총 498명(오차 범위 +/-4.4%), 47지구에서는 525명(+/-4.3%)이 참가했다.

최인성 기자

최석호 가주 상원 37지구 후보
아무런 제지 없는 법안 통과
모두가 침몰하는 결과로 귀결

“최소한의 균형,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가주 상원 37지구에 도전 중인 최석호 후보(공화)는 양당의 ‘정책적 균형’이야말로 가주민이 생존하기 위해 찾아야 할 절대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지난 23일 본지를 방문한 최 후보는 한인 유권자들에게 “의회 내 균형을 통해 도울 것은 돕고, 필요한 문제점을 지적해낼 수 있어 정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 주도의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은 큰 반발을 사고 있지만, 소위 ‘암묵적 집단 행동’으로 일들이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해한 법안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무



최석호 후보가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한 통과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결국 이런 과정은 모두가 침몰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 최 후보의 생각이다.

신혼여행 온 한국인 포커대회 우승

조성민씨 커머스 카지노서
1등 상금 8만7천불 수령

신혼여행으로 LA를 찾은 한국인이 커머스 카지노에서 열린 포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화제다.

24일 포커 전문 매체 포커 뉴스에 따르면, 한국인 조성민(사진)씨가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커머스 카지노 앤 호 66텔에서 열린 ‘커머스 카지노 홀덤 시리즈 메인 이벤트’에서 우승했다. 조씨는 517명의 참가자를 제치고 우승 트로피와 함께 8만7315달러의 우승 상금을 거머쥐었다.

서울 출신의 조씨는 신혼여행 차 LA를 방문했다. 그는 대회 참가 이유에 대해 “최근 6개월 동안 포커를 하지 못했는데, 아내가 LA에서만 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줬다”며 “이번



우승을 신혼여행의 특별한 추억으로 간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대회 마지막 날 칩리더로 남아 있었고, 결국 3명의 선수와 함께

ICM(Independent Chip Model) 합의

를 통해 우승자로 선정됐다.

당시 2위로 차지한 브라이언 헤이스팅스는 세계 포커 대회(WSOP)에서 6개의 팔찌를 보유한 베테랑 선수로, 이번 대회에서 8만100달러를 획득했다. 3위는 폴 W. 리가 차지하며 7만2495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한편, 이번 대회 총상금은 54만2850달러였다. 최종 테이블에서는 미국, 일본, 페루 등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경쟁을 펼쳤다.

김경준 기자

동시에 그는 “최소한 한인사회를 대변할 수 있도록 새크라멘토에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제 상원 37지구 데이브 민 의원도 가주를 떠난 상태라 김치의 날, 한글의 날, 태권도의 날 등 한인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며 “후진 양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 민 후보의 상대인 스캇 보 후보(공화당)에 대한 지지 표명에 대해 최 후보는 “당내 측근으로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지지 표시”라며 “민 후보를 무시하거나 적대시하기 때문이 아니며, 정당 내 관례적인 선거 시스템의 하나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이브 민 후보도 최근 회견에서 자신의 조시 뉴먼 지지에 대해 여전히 최 후보를 존중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선거라 공화당 유권자들 중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느냐’는 질문도 적지 않다.

최 후보는 “트럼프 개인 성향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점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의 공약과 정책은 미국의 앞날을 위해 필요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한편, 현재 상원 37지구(풀러턴, 어바인, 라구나 니겔, 오렌지, 플랜테니아, 터스틴, 요바린다)에는 지역구 조정으로 현역인 조시 뉴먼 민주당 후보가 출마해 최 후보와 경쟁하고 있다. 37지구 내에는 98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유권자 63만여 명 중 19%가량이 아태계다. 인구 구성에서는 백인이 56%, 라틴계 22%, 흑인계가 2%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원이 37%, 공화당원이 32%이며 24%가량이 무소속 유권자다.

어바인 시의원과 시장을 거쳐 가주 하원 3선 출신인 최 후보는 무소속 유권자 다수와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민주당 유권자들의 표를 흡수할 경우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전동스쿠터 사망사건 뺑소니범 수배 제보자에 5만 달러 보상금

최근 60대 한인 남성이 LA 한인타운 인도에서 불법으로 질주하던 전동 스쿠터와 충돌해 숨진 가운데 경찰이 용의자(사진)를 찾기 위해 보상금을 내걸었다.

24일 LA경찰국(LAPD)은 성명을 통해 지난 12일 제임스 M 우드 불러바드와 사우스 웨스트모어랜드 애버뉴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전동 스쿠터 뺑소니 사건 용의자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LAPD는 용의자 체포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5만 달러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으로 숨진 보행자는 한인 도니 김(65)씨다. 김씨는 이날 사



건 현장 인근 주차장에 서 아내 제니 김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위해 길 건너 식당으로 걸어가던 중이었다. 주차장에서

김씨가 인도로 나온 순간 빠르게 질주하던 전동 스쿠터와 부딪혔다.

충돌 이후 김씨는 병원 이송 대신 응급처치를 택했다. 그러나 그는 귀가 후 통증을 호소하고 구토를 하는 등 상태가 악화하자 이날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를 뒤인 지난 14일 끝내 병원에서 숨졌다.

김경준 기자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현금 쓰면 신용카드 수수료 절약

주유할 때 개인 정보 보호도
쇼핑 시 충동구매 방지 가능
수입 예산 내 지출로 돈 아껴

물가 상승 여파와 소득 증가 정체로 생활비 조달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카드 부채도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더 내야 하고 또 과소비로 이어지기 쉽다며 현금이나 데빗카드를 사용하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데다 본인 예산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금이 신용카드 결제보다 돈 절약 면에서 더 나을 때를 알아봤다.

▶**가스값**

자동차에 주유할 때 보통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주유소는 신용카드

사진은 베벌리힐스의 한 주유소 차량에 주유기가 꽃혀 있는 모습. [로이테]

사용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추가로 받기 때문에 현금 결제가 더 유리하다.

개인금융전문업체 너드웰렛은 주유소에서 신용카드 대신 현금으로 지불하면 갤런당 평균 5센트~10센트, 최대 40센트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15갤런 기준 적게는 75센트, 많게는 6달러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일부 주유소에

서는 데빗카드 결제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매체는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현금 결제가 낫다. 카드 단말기 내부에 특수장치를 삽입해 카드 소지자의 개인정보를 갈취하는 ‘스키머(skimmer)’ 사기가 급증해서다. 신용 전문업체 파이코(FICO)는 지난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데빗카드 건수는 31만5000건이었다고 전했다. 이는 2022년과 비교해 96% 급증한 것이다.

▶**대학 학비**

대학 학비 납부할 때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 또는 데빗카드로 결제하는 게 이롭다. 대학에서 부과하는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가 신용카드의 다른 혜택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고백 킹레이트닷컴에 따르면 전국 대학교의 85%가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한

다. 결제 금액의 2~3%를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는 데 통상 신용카드사의 캐시백 혜택이 이보다 낮은 것이다. 특히 신용카드 평균 연체 이자율이 24.92%인 점을 고려하면 납부를 한 번 밀려도 큰돈을 연체료로 지불해야 해서 더 주의해야 한다.

▶**그로서리 쇼핑**

그로서리 쇼핑 시에 신용카드를 쓰면 충동구매로 과소비할 수 있다. 따라서 현금이나 데빗카드 사용을 통해 본인 예산 안에서만 소비하는 습관을 기르면 과소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포브스는 최근 조사를 통해 현금 결제 시 충동구매할 확률이 신용카드 사용 시보다 2배 낮았다고 전했다. 매체는 구매 품목을 미리 정하고 예산을 세우면 돈을 더 아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재선 기자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세계시민상 수상



이미경(사진) CJ그룹 부회장이 아시아인 여성 기업인이자 문화인으로서의 최초로 세계시민상을 받았다. 국제협력 연구기관 애틀랜틱카운슬(Atlantic Council)이 세계 시민의식을 구현한 리더에게 2010년부터 주고있는 상이다.

23일 CJ ENM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700여명이 참석한 제13회 세계시민상 시상식에서 연설을 통해 “문화는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힘은 아닐지라도 공감의 다리를 건설하는 힘이 있다”며 “영화 ‘기생충’ 같은 작품은 전 세계에서 불평등이란 화두를 던졌다. 우리가 만든 것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연결”이라고 했다.

강민혜 기자

잠자는 기프트 카드 ‘270억불’

소비자 43% 미사용 카드 보유
일인당 평균 가치는 244달러
현금화 가능한 웹사이트 많아

#. 페어팩스에 거주하는 S씨는 최근 회사 상사에게 메시지를 받았다. 업무상 급하게 필요하니 기프트 카드를 구매한 뒤에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련번호를 찍어서 보내라는 것이었다. 지시대로 기프트 카드를 구매했지만, 어딘가 수상쩍어 상사에게 연락을 해봤고 마지막에 피싱 사기인 것을 깨달았다. 사기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200달러어치 기프트 카드는 환불을 받을 수 없었고 현재는 처리하지 못해 골칫거리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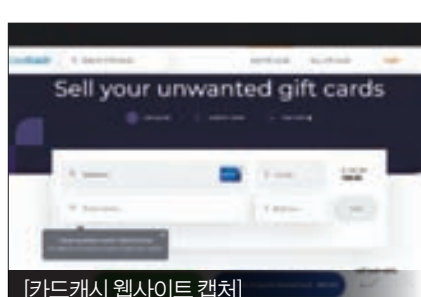
#. MD 락빌에 거주하는 P씨는 올해 생일에 500달러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선물로 받았다. 막상 사용할 때가 되니 난감했다. 평소애 본인이 이용하지 않는 업체의 기프트 카드였기 때문이다.

기프트 카드를 사용하려고 매장을 둘러봤지만, 마땅히 구매하고 싶은 상품을 못 찾았다.

소비자의 10명 중 4명 이상이 미사용 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업체 뱅크레이프가 2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쓰지 않은 기프트 카드나 스토어 크레딧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3%에 달했다. 소비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사용 기프트 카드의 평균 가치는 244달러였다. 미사용 기프트 카드 총액은 270억 달러가 넘었다. 월마트나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업체의 경우 미사용 기프트 카드 잔액이 10억 달러를 훌쩍 넘기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8세부터 43세 사이의 밀레니얼 세대가 보유 중인 미사용 기프트 카드 평균 액수는 332달러로 다른 세대에 비해 높았다. 44세와 59세 사이의 X세대(255달러)와 60세에



[카드캐시 웹사이트 캡처]

서 78세 사이의 베이비부머(227달러)가 뒤를 이었다. 28세에서 27세 사이의 Z세대는 142달러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기프트 카드가 소비자들의 ‘골칫거리’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용 제한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프트 카드는 발행한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매장으로 이용 가능하지만 온라인에 본인인이 찾는 상품이 없으면 기프트 카드를 사용하기 쉽지 않다. 이리다 보니 기프트 카드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는 소비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34%에 달하는 소비자는 기프트 카드를 사용하지 못해 손해를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 유효기간 만료(20%) ▶ 기프트 카드 분

실(17%) ▶ 기프트 카드 발행 매장 폐업(12%) 등이 꼽혔다.

뱅크레이프의 테드 로스먼 선임 애널리스트는 “많은 사람이 기프트 카드를 지갑에 꽂아놓거나 서랍에 넣어놓고 존재 자체를 잊어버린다”라며 “기프트 카드는 받자마자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원치 않는 기프트 카드라면 플랫폼을 통한 현금화도 가능하다. 카드캐시(CardCash), 레이즈(Raise), 기프트캐시(GiftCash)와 같은 기프트 카드 거래 전문 플랫폼을 이용하면 액면가의 70~88% 정도의 현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은 기프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거나 판매 시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기프트 카드를 최대한 현금화하려면 여러 사이트를 비교하고 이용자 평판이 좋은 업체를 고르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개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플랫폼에서 지급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지만, 거래 위험성이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원희 기자

사이버트럭 재판매 금지 조항 삭제



사이버트럭(사진)을 페이스북 마켓 등 온라인 차량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됐다. 다수의 엑스(X·옛 트위터) 사용자들은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구매 계약서에서 재판매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테슬라는 앞서 사이버트럭을 출시한 지난 11월 이후 차량 회소성 관리 목적으로 재판매 시 페널티 부과 규정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구매자는 사이버트럭 구매 후 1년 안에 재판매를 할 수 없었다.

만약 이 약관을 어기면 재판매한 고객에게 5만 달러와 재판매액 수익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을 구매 계약서에 명시해 왔다. 그런데 이 조항이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보이지 않게 됐다고 한다.

이는 사이버트럭 공급이 늘어나면서 차량 회소성이 감소하자 업체가 구입 약관 규정을 없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재선 기자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마이클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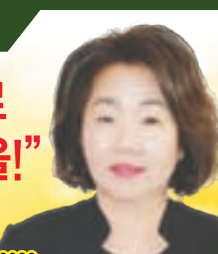
맞춤형 금융의 달인

맞춤형 금융계좌
대출이자도 행복해드립니다

주책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숏세일, 포클로저 주택 Sale 전문



제임스 박 부동산



SPRINGFIELD SHINGL HOME
FORECLOSURE \$930,000

2002년도 지음 (시세 \$120만)
방 4/화장실 4.5/ 차고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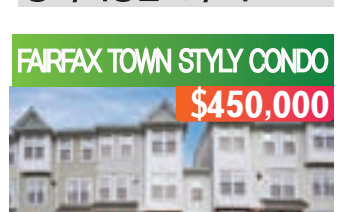
MANASSAS SINGLE HOME
FORECLOSURE \$750,000

2002년도 지음 (시세 \$85만)
방 4/화장실 3.5/ 차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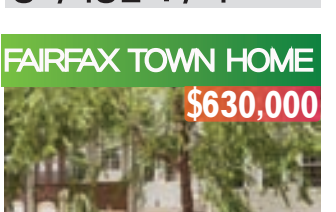
FAIRFAX TOWN CONDO
\$530,000

2005년도 지음 GOOD CONDITION
방 3/화장실 2.5/차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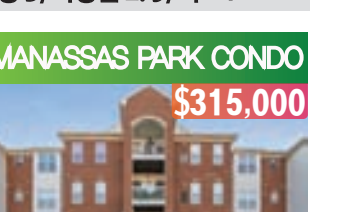
FAIRFAX TOWN STYLY CONDO
\$450,000

2003년도 지음 GOOD CONDITION
방 2/화장실 2/차고1



FAIRFAX TOWN HOME
\$630,000

GOOD CONDITION
방 2/화장실 2.5/차고 1



MANASSAS PARK CONDO
\$315,000

ELEVATOR GOOD CONDITION
방 2/화장실 2/차고 0

NVAR 2012 LIFE-TIME Top Producer
VA / MD Associate Broker
james2424500@yahoo.com

571.242.4500 제임스 박

VA FAIRFAX HQ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GIANT REALTY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융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융자에 맡겨 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GREENWAY HOME LOANS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SB,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 MLB2501870; MD 2501870; NC L-219085; VA MC-7782; TX 2501870; PA 108823; FL ML02525; SC 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히마트 건너편 위치)

최대 무슬림 단체, 해리스 지지

“무슬림 혐오 복귀 막아야”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간 전면전 위기가 높아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전쟁이 1년을 앞둔 가운데 미국의 최대 무슬림 유권자 단체 중 한 곳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엠게이지 액션은 2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정부 때의 이슬람 혐오 및 다른 유해한 정책으로 복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패배시킬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단체는 “이번 지지는 해리스 부통령과 모든 이슈에 대해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것보다는 우리 유권자들이 투표장에서 직면하게 될 어려운 선택에 대해 정직하게 안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특히 해리스 부통령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정책이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번 선거를 실용주의 및 신념에 기반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DC에 기반을 둔 이 단체는 모두 8개 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대선 북부 경합주인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지지와 관련,

“이스라엘이 안전해지고, 모든 인종이 석방되고,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고통이 끝나는 한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유, 존엄, 안전,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자지구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캠프가 AP통신에 전했다.

아랍 및 무슬림계 미국인들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지만, 가자지구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면서 바이든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왔다.

특히 일부 유권자들은 올 상반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지지 후보 없음’(Uncommitted)에 투표하기 운동을 통해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바이든 정부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대선 경합주인 미시간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단독 출마한 민주당 경선에서 투표자의 13.2%가 ‘지지 후보 없음’에 투표하면서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북부 경합주 득표 전략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7월 대선 후보로 등판하기 전에는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 “너무 많은 무고한 팔레스타인 주민이 죽었다”고 말하는 등 바이든 대통령보다 좀더 민간인 피해 문제에 더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달 전당대회 수락연설에서 이스라엘 방어권 및 팔레스타인의 존엄과 자유를 동시에 언급하는 등 등판 이후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유사한 정책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총격범 인질극

승객 1명 사망

1시간 추격전 끝에 총격범 검거

25일 한밤중에 로스앤젤레스(LA) 시내를 운행하던 버스에 총기로 무장한 괴한이 올라타 승객 1명에게 총격을 가하고 1시간 동안 운전기사에게 총을 겨누며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5분께 LA 맨체스터와 피게오라 지역에 있던 시내버스에서 긴급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잇달아 접수됐다.

경찰은 오전 1시가 조금 지난 시각에 인근 지역에서 정차한 버스를 발견하고 운전기사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버스가 그대로 출발했고 경찰은 이 차량을 쫓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 버스에 무장한 남성이 탑승해 다른 승객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특공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약 1시간 동안의 추격전 끝에 경찰은 차량 타이어를 찢는 스पा이크



LA 시내버스 총격범 추격전 현장 영상

[ABC7 X 게시물 캡처]

스트립을 버스가 지나가는 도로에 던져 차량을 멈춰세웠다.

경찰기동대는 버스에서 범인을 체포했고, 운전기사과 승객 2명이 탑승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승객 중 1명은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상태였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다른 승객 1명과 운전기사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으나 몸에 다친 곳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의 초기 조사 결과 총격범은 이 버스에 처음 올라탄 뒤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한 승객에게 총격을 가했고,

이를 본 다수의 승객이 버스 밖으로 황급히 도망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인은 버스 기사에게 총을 겨누는 차량량을 계속 운전하도록 했고, 기사는 비교적 침착함을 유지하며 버스를 최대한 안전하게 운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총격범이나 피해자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LA 시내에서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와 전철에서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전철인 메트로 B 라인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50대 여성 승객이 찔려 사망했다.

지난 3월에도 총기를 지닌 남성이 시내버스에 올라타 운전대를 잡고 질주하다 여러 대의 차량과 충돌하고 호텔 벽에 부딪히는 사건이 있었다.

언론은 LA시가 2028 LA 올림픽을 준비하는 가운데 도심의 불안한 치안이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린 배스 LA 시장은 지난 5월 경찰에 대중교통 노선에 대한 치안 강화를 요구했다.

“미국, 대규모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표할 듯”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위해 책정해 둔 자금을 소진하기 위해 며칠 안에 수십억달러 상당의 대규모 무기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CNN 방송이 24일 보도했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 4월 우크라이나에 608억달러를 지원하는 안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예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활용해 의회의 별도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예산은 134억달러다.

미국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와 장비 대부분은 PDA를 통해 공급된 것이다.

PDA 예산 사용 기한은 정부 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달 30일까지인데, 예산 134억달러 중 현재 60억달러가

남은 상황이다.

CNN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의회를 설득해 이 예산의 사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길 원한다.

사용 기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60억달러나 되는 자금을 계획성 있게 집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간을 벌려는 것이다.

하지만 의회가 기한 연장을 승인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낮다.

소식통에 따르면 야당인 공화당 내부의 반대로 이 문제는 의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하원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두고 내부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4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법 통과를 주도한 마이크 존슨 미국 연방 하원의장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는 공화당 내 ‘친(親)트럼프’ 세력으로부터 해임 위협을 받기도

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당장 끝내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 된다는 입장으로, 재선되면 내년 1월 취임 이전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장담해왔다.

대규모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계획은 이르면 25일 3억7천500만달러 규모로 발표된 후 순차적으로 액수를 늘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CNN은 전했다.

미국 정부는 전반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한 후 여러 달에 걸쳐 물자와 장비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 초기에는 계획이 발표되는 즉시 비축 물자를 꺼내 지원할 수 있었지만, 전쟁이 2년 7개월째 계속되면서 미국 내 무기 재고도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CNN은 전했다.



피싱 오스트레일리아TV 페이스북

이게 말이야, 물고기야

‘지구 종말’ 별명 그녀석, 호주서 잡혔다

호주 해안에서 ‘최후의 날 물고기’란 별명을 가진 심해어인 산갈치가 발견됐다고 호주 9뉴스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낚싯배 선장인 커티스 피터슨은 최근 호주 멜빌 섬 앞바다에서 산갈치(Oarfish)를 낚았다. 낚시전문방송 피싱 오스트레일리아 TV가 지난 20일 페

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보면 피터슨이 잡았다는 이 산갈치는 머리가 말을 떠울리게 하는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다.

성인 남성 2명이 들어야 할 정도로 거대한 길이를 자랑한다. 피싱 오스트레일리아 TV 측은 페이스북 댓글로 “(물고기 위에) 안장을 올려보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9뉴스는 “물고기라기보

다 외계인에 더 가까운 희귀 생물”이라고 설명했다.

산갈치는 심해 희귀 어종이다. 몸길이가 10m에 이르는 거대한 크기와 붉은 등지느러미가 있는 화려한 생김새가 특징으로 꼽힌다. 한국에서는 ‘산 위의 별’이 한 달 동안에 15일은 산에서, 15일은 바다에서 서식하며 산과 바다를

날아다닌다’라는 전설이 있어 산(山)갈치라고 부른다. 산갈치는 수직 1000m까지 수직으로 헤엄친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산갈치는 서양권에선 ‘최후의 날 물고기(Doomsday Fish)’라고 불리며, 지진 등 재앙의 전조라는 속설이 있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

이 아니다.

호주 박물관 측은 “살아있는 산갈치를 만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이 주로 죽은 채 해변에 떠밀려오면서 발견된다는 얘기도. 낚시 평론가인 알렉스 줄리어스는 데일리메일에 “이 물고기를 산 채로 잡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 합니다! (건물-사업체-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 / Notary Public

오승환

Seung Oh

410.303.0452

GIANT REALTY

MD 자이언트
No. 1
에이전트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40

Celebrating
years
Since 1982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SEP. 26th - OCT. 3rd, 2024



SUHYUP Frozen
Soy Sauce & Spicy Marinated Crab
수협 간장게장 & 양념게장 2.75 LB/BOX

\$12.99

LIMIT
5



HELLO! Disposable Plastic
Poly Gloves
헬로! 비닐 위생 장갑

200 PCS/PKG
~~REG. 4.49~~

\$2.1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VIRGINIA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중국, 44년만 태평양에 ICBM 쏘았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25일 오전 태평양 공해 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국이 ICBM을 내륙이 아닌 태평양으로 발사한 것은 1980년 5월 '동평-5' 이후 44년만이다. 이를 두고 "최근 미국이 필리핀에 중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풀이도 나온다.

이날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태평양 공해 상을 향해 훈련용 모의 탄두를 탑재한 ICBM 발사에 성공했다"며 "예정 해역에 정확하게 낙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연례 계획에 따른 훈련으로 발사에 앞서 관련 국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일본 해상보안청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지난 23일 중국으로부터 남중국해와 필리핀 루손 섬 북부의 남중국해와 북태평양 3개 해역에 '우주 잔해' 경보를 통지받았다"고 말했다.

중국 국방부는 어떤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진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운용 중인 최신 ICBM인 '동평-41'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동평-41은 사거리가 1만2000~1만5000km로 중국 동부에서 발사하면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실전 배치됐으며, 2019년 건국 70주년 천안문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됐다.



지난 2019년 10월 1일 중국 건국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베이징 천안문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1만5000여 명의 병사와 최첨단 신형 무기가 대거 등장했다. 최대 사거리 1만5000km로 북미지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평-41'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EPA [출처:중앙일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중국의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사일 활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시험발사가) 이뤄졌다"고 짚었다.

특히 미국의 미사일 배치와 관련성이 거론된다. 미국은 지난 4월 필리핀과 합동훈련 중 대만해협과 인접한 루손 섬에 중거리 미사일 체계인 '타이폰'(Typhon)을 배치했다. 이후 미국은 "중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타이폰을 당장 철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의 급속한 핵 전력 강화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 주변에 미사일 배치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 국방부가 공개한 '중국 군사력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 현대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중국 이 대부분 ICBM인 부대의 발사대 숫자를 두 배로 늘렸고 계속 보강하고 있

다"며 "2022년 동평-31, 동평-41을 포함해 약 350기의 ICBM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3개의 새로운 고체 추진체 사일로가 건설 중"이라고 공개했다. 중국 군사평론가 쑹중핑은 "로켓군이 태평양 특정 지역을 겨냥해 전체 계획을 시험했다"며 "무기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보여준 것"이라며 평가했다. 한마디로 미사일의 신뢰성을 과시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대만 국방부는 "최근 중국군이 실시하는 집중적인 미사일 사격 등 훈련 활동을 파악하고 있다"며 "합동정보·감시·정찰 방식을 활용해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항공기·함정·해안미사일시스템을 이용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필리핀 해역에 배치된 중국 선박의 숫자가 최근 1주일만에 60% 급증해 올해 최다를 기록했다고 필리핀 해군이 발표했다. 25일 dpa 통신에 따르면 서필리핀 해역에서 지난 17~23일 1주일간 중국 선박 25척이 관측됐다. 이는 이전15(57척) 주보다 60%나 늘어난 수치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 1면 '통일 정책'에서 이어집니다

▶박영호 전 강원대 교수=과거 서독은 자국 영토를 동독까지로 규정하면서 주권 관할 조항을 뒤 현실적으로 헌법이 미치는 범위를 서독에 한정했다. 동서독기본조약 체결로 동독의 실체를 인정하고 '국가 대 국가 간 특수관계'로 대화했다. 독일 같은 실용성이 있어야 정책의 신축성을 가진다. 8·15 통일 독트린은 우리의 운용 공간을 스스로 축소할 것 같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여야 합의가 어려운 정치환경과 남한을 적대국으로 여기는 북한의 태도 속에 정부보선 진전된 통일 방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에게 선 얻을 게 없고, 미국과 11월 대선 이후 대화하는 게 낫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의 1차 분수령은 미국 대선이 될 것이다.

정치개혁 등 통일 역량 강화가 우선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트럼프·해리스 당선 모두 장단점이 있다. 트럼프가 되면 워싱턴 조약이 한반도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겠지만 미 유권자만 의식한 불안정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 해리스의 경우 한미, 한미일 협력 구도는 유지되겠지만 '전략적 인내 3.0'이 될 우려가 있다. 중요한 건 우리다. 정치개혁·지방자치 강화·양극화 해소 등으로

통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역대 정권의 대북정책은 자기 진영만의 반쪽짜리 합의였다. 정권이 교체되면 대부분 사라졌다. 8·15 통일 독트린도 2년째 리얼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외교안보 어젠다는 여야 합의가 없으면 발표하지 못하게 법제화라도 해야 하지 않나 싶다. 트럼프든 해리스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한국의 통일 정책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2002년 북한을 '악의 축'이라 부른 직후 한국을 방문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김대중 대통령은 "젓먹던 힘을 다해 설득했다"고 술회했다. 결국 개성공단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한반도를 가장 잘 아는 건 미국이 아닌 우리다. 미국 대통령이 누구인가보다 우리의 주체적 역량이 더 중요하다.

미국-베트남 수교 과정 연구해야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 정권이 포용하기 어려운 북한 주민의 인권만 강조했다. 독트린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통한 '통일 버리기'를 도운 셈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마저 통일의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 내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통일은 물 건너간다. 우리라도 91년 이후 세워진 남북관계 특수성을 최대한 불붙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을 최대한 불붙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통일은 북한과 외국을 설득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그러려면 관련 토론이 활발해야 하는데 국내에선 정치권이 이를 봉쇄하고 있다.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수단으로만 대북 정책을 이용한다. 개헌이 어렵다면 선거법이라도 고쳐 중대선거구제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구조가 된다. 국민 세금을 받는 정당들이 왜 국민을 반으로 나누는 정치를 하는가.

▶전홍택 KDI 명예교수=북미 수교 관련해 베트남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 개방이 성공했던 중요한 전제조건이 미국과의 수교다. 대국민 중국의 사례는 북한에 적용하기 어렵지만, 베트남은 다르다. 과거 베트남은 협상 초기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

으로 수용하면서 타결의 돌파구를 열었다. 미국-베트남 수교 과정을 들여다 보면 핵협상 등에 적용할 부분도 발견할 수 있다.

▶박문수 미래와기치 회장=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간에 남북문제만큼은 미국에 맡기기로 우리 스스로가 일지된 의견으로 입장을 천명했으면 좋겠다. 정치권이 여야든 진보 보수가 됐든 간에 일관된 의견을 내 정책을 지속했으면 좋겠다. 서독은 몇십년 동안 동독에 약 300조원을 지원했다. 현재 남북 간 대화 자체가 단절된 건 부끄러운 일이다.

91년 기본합의서 체제 지켜야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생물 진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단세포가 외부에서 들어온 미토콘드리아와 공존을 선택한 것이다. 그전까지는 외

부 침입자를 파괴하는 것만을 생존 전략으로 삼았다.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를 받아들이면 다세포가 되고 나아가 사람까지 됐다. 통일 문제에서도 상대방과의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 많은 어려움 속에 만든 91년 기본 합의서 체제를 남북 스스로 부수서는 안 된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사회)=남북 대화는 2018년 이래, 북미 대화는 2019년 이후 단절 상태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지켜야 할 러시아는 오히려 북한과 핵 동맹을 체결하는 단계까지 왔다. 사실상 북핵 문제의 국제화, 핵 대결 시대로 접어든 셈이다. 이 와중에 국내 진영대결은 최악으로 가고 있다. 이전 한국과 미국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중앙홀딩스 회장)=급변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지도층이 낚아챌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기존 통일 정책은 정권마다 합의를 못 이루고 자기 진영만의 5년 어젠다에 그치며 금방 힘을 잃었다. 가장 좋은 정책은 합의된 정책이다. 진영과 계층 간의 최대공약수를 찾아 나가야 한다. 우리 같이 분열된 사회에선 처음엔 그것이 아주 작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키워나가는 노력이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승호·장윤서 기자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박문수 미래와기치 회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중앙홀딩스 회장), 정동영 국회의원,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박영호 전 강원대 교수,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 남성욱 고려대 교수,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윤상현 국회의원, 전홍택 KDI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 김종호 기자



김철민

-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에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 빌딩 3층



마이클 장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마이클 장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한 알에
160가지 성분이
들어있다!



우메켄 효소환 모델
강석우/나연신 부부

보라보
마이
우메켄 효소환

160가지 발효 성분으로 더 강력해진 우메켄 **NEW** 효소환

36가지 과일 | 27가지 야채 | 68가지 허브 및 해초 | 29가지 곡물과 버섯

새로 출시된 우메켄 NEW 효소환이 특별한 이유는?

우메켄 NEW 효소환은 나이 들수록 부족해지는 몸 속에 효소를 채워주는 생명 보조 식품으로
160가지의 순수한 약초와 과일, 채소, 버섯, 곡물의 생명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업그레이드된 효소환으로 몸 속 부족한 효소를 보충하자!

출시 기념

NEW 효소환 구매 시 특별한 선물과 효소환 2주분 무료 증정!

9/30일
까지

이런 분들
꼭 드세요!

- 항상 피곤하고 기력이 없는 분
- 몸 컨디션이 저조하신 분
- 숙취가 심하신 분
- 자주 독감, 감기 걸리시는 분
- 혈압이 비정상적인 분
- 과체중이신 분
-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
- 어깨 결림이 심하신 분
- 위통이 심하신 분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우메켄
구입처

■ ANNANDALE • 웰빙모아 (703)256-5500 • 건강마을 (703)354-1515 •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 CENTREVILLE • 웰빙모아 (703)830-7755 •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 ELLICOTT CITY • 롯데플라자 (410)750-9656 • 모드니에 (410)615-6167 • 힐링 마을 (443)878-9010 ■ CATONSVILLE • BESETO (410)303-5530 ■ GAITHERSBURG • GREEN COSMETIC (301)926-6307

성과내도 모자란데 ‘빈손 만찬’, 윤·한, 감정 골만 더 깊어졌다

한동훈, 독대 재요청 공개 놓고
용산 “왜 언론에 공개하나” 불쾌
여권 “이대로 가면 공멸” 위기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 상견례를 겸해 성사됐던 24일 만찬 회동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꼬인 실타래를 풀기는커녕 여권 내 갈등만 또다시 노출하는 자리가 됐다.

여권 핵심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음에도 현안 해법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오히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재차 요청한 걸 두고 “그걸 왜 언론에 곧바로 공개하나”(대통령실), “과거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주례회동도 했는데 독대 요청이 왜 문제냐”(당 지도부)는 식의 감정싸움만 벌어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사적(私的) 감정으로 공적(公的)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공멸한다”(영남 중진)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검찰 조직에서 오랜 기간 함께 호흡한 두 사람이 신경전을 벌이는 초유의 상황에 여권의 위기감도 증폭되고 있다. 25일 기자들과 만난 한 대표는 전날 회동에 대해 “현안 관련 얘기가 나올 만한 자리는 아니었다”며 “중요한 현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필요가 여전히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만찬의 성과는 저녁 먹은 것”이라고 농탄 한 대표는 “정치는 중요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아니겠나. 저는 그러고 있다”고 덧붙혔다.

당초 한 대표는 짧게라도 윤 대통령과 독대에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생각이었다고 한다. 만찬 장소에 23분 일찍 도착해 윤 대통령을 기다리고, 행사 종료 뒤에도 잠시 남아 있던 이유였다는 것이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날 만찬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독대가 불발되자 행사장을 떠나기 직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독대를 거듭 요청했고, 이 사실은 국민의힘 참석자들을 통해 언론에 공개됐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가 만찬장에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독대를 요청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고, 그렇게 했다면 성사됐을 것”이라며 “언론을 통해 말하는 식이면 당분간 독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독대를 정말 하고 싶은 건지, 요청했다는 흔적만 남기고 싶은 것인지의 문이 든다”는 말도 용산에서 나왔다.

이처럼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팍 막힌 상황에 대해 한 대표 측은 답답함을 호소한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용산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먼저 제안해 놓고, 20일간 도와주는 것 하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직자는 “한 대표는 처음부터 한 발은 용산과 같이 가고, 다른 한 발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외연을 확장하는 ‘피벗(pivot) 플레이’를 구상했는데, 용산에 두 발 다 묶였다”고 했다. ‘피벗 플레이’란 농구 경기에서 공을 지닌 선수가 수비수를 피하기 위해 한 발은 지탱한 채

다른 발을 옮겨 닫는 기술이다.

그간 한 대표는 순직해병 특검법의 제3차 추천 방식 제안, 의대 정원 증원 유예 논의,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 필요 등을 언급했다. 한 대표 측은 대통령실과의 역할 분담이라는 입장이지만 외려 당정 엇박자 논란만 커지자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허심탄화한 대화를 시도했다는 설명이다.

친한계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깊이 있게 현안을 논의할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만찬만 하고 끝나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로서 적어도 견제나 인사말을 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준비했을 텐데, 그런 기회도 없었다”며 “독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두세 번이라도 요청할 필요가 있다. 독대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사적 감정으로 공적 책무 망각”

다른 친한계 인사들도 “한 대표가 대통령이 좀 일찍 와서 ‘나랑 잠깐 얘기합시다’ 하는 상황을 기대했던 것 같다. 끝나고 나서라도 내심 기대했던 것 같은 느낌이지만 전혀 없었다”(김종혁 최

고위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났다”(신지호 부총장)며 한 대표가 패상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비한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대통령을 마주 보고 이야기를 꺼낼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며 “한 대표 스스로 ‘이 자리에선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본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여론에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받을 소지를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배려해 만찬 장소와 메뉴, 산책까지 제안했던 것이라고 반박한다. 윤 대통령은 만찬 중 “우리 한 대표가 좋아해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거나 “우리 한 대표는 뭘 마시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만찬 장소로 분수정원을 택한 것도, 산책을 제안한 것도 한 대표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윤 대통령이 고안했던 것”이라며 “한 대표는 독대를 포함해 윤 대통령에게 여러 제안을 할 기회가 충분했다. 그런 판을 깔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중앙일보에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비공개로 수시로 만나 허심탄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꼭 필요하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며 “당 대표의 독대 요청 사실이 사전 유출돼 주요 뉴스가 된다는 사실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 한 패상” “한, 대통령 비난 여론 초래”

양측의 불편한 기류는 만찬 준비 과정에서부터 감지됐다. 실제 식사가 성사되기까지 우여곡절도 있었다. 지난 달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둘러싸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 대표

가 충돌하며 만찬이 한 차례 연기된 것이 갈등의 시작이었다면, 지난 주말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고 대통령실이 “별도로 협의할 사안”(23일 브리핑)이라고 거부하면서 증폭됐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추경호 원내대표가 포함된 3자 회동을 둘러싸고 양측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대통령실에선 한 대표 측이 추 원내대표를 포함한 ‘만찬 전 3자 차담회’ 제안을 거부했다고 주장한다. 한 대표 측은 “추 원내대표와 함께 만찬 전 차담회는 어떨겠냐”고 역제안했지만, 한 대표 측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어떻게든 만찬이 성사될 수 있도록 양측 참모와 추 원내대표가 나서 수차례 협상을 시도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른바 ‘윤·한 갈등’이 재점화되는 듯한 조짐에 여권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 전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던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한 데 이어, 김 여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 등의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시점도 임박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상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여권의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쓴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포용하고 경청할 줄 모르는 대통령이 나, ‘독대’를 두고 언론플레이만 하는 당 대표나 둘 다 치졸하고 한심하다”며 “배가 가라앉고 다 망해 봐야 정신을 차릴 건가. 그때는 뒤늦게 후회해 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썼다.

오현석·김기정·박태인 기자

서울교육감 보수 후보 조전혁, 12년만에 단일화 성공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25일 보수 진영은 조전혁 전 국회의원을, 진보 진영은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를 단일화 후보로 각각 추대했다. 이날 오전 보수 진영 단일화를 추진하는 시민단체 모임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조 전 국회의원이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조 전 의원은 “반반이 실패를 거듭한 중도·보수 단일화가 이번에는 극적

성공했다”며 “그만큼 서울교육을 바꾸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크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이 단일화 추진 기구로 후보를 낸 건 2012년 보궐선거 때 문용린 후보 이후 12년 만이다. 2014년엔 문 후보가 추대됐으나 고승덕 후보가 독자 출마하며 표가 분산돼 진보진영 단일 후보였던 조희연 후보가 승리했다. 조 전 후보는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으며, 보수 후보 중에서도 강성으로 평가받는다. 18대 한나라당 국회

의원을 지냈으며, 인천대·명지대 교수를 역임했다.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정보를 공개했고, 이와 관련한 법원 판결로 전교조 교사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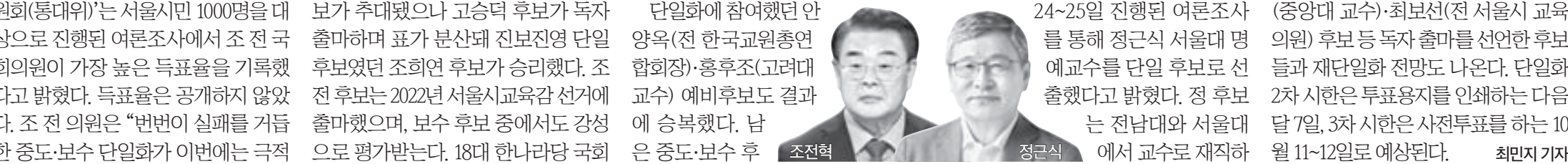
단일화에 참여했던 안양옥(전 한국교육원총연합회장)·홍후조(고려대 교수) 예비후보도 결과에 승복했다. 남은 중도·보수 후보

중 김영배 전 상명대 특임교수, 윤호상 전 서울미술교 교장은 독자 출마 뜻을 밝혔다. 조 전 후보는 김 교수에 대해 “마지막까지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단일화 뜻을 밝혔지만, 윤 전 교장은 “보수 후보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진보 진영도 같은 날 단일 후보를 추대했다.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는 24~25일 진행된 여론조사를 통해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전남대와 서울대에서 교수로 재직하

며 5·18민주화운동 연구와 광주인권헌장 제정에 참여했다. 2020년에는 2년간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장으로 활동했다. 정 후보는 “불통과 졸속으로 일관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심판하고 혁신교육을 계승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재홍(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조기숙(전 이화여대 교수)·방현식(중앙대 교수)·최보선(전 서울시 교육의원) 후보 등 독자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과 재단일화 전망도 나온다. 단일화 2차 시한은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다음 달 7일, 3차 시한은 사전투표를 하는 10월 11~12일로 예상된다. 최민기 기자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보험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전미주로 뻗어가는 브리지원 보험과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브리지원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대표번호: **562-896-3400**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 동 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세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무보험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invisalign Science in Every Smile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H마트 주차장 건너편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중앙일보건물2층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프레지루 제과점 옆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만권

채용 공고 미동부 투어가이드
에이전트(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인턴넷보다 저렴한
최저가
한국항공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ASIANA AIRBES UNITED
HANA AIR CHINA
KIM CANAD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해드립니다

Korea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VISIT KOREA YEAR
2023-2024

한국방문의 모든것!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최고급 럭셔리!

고품격 고국일주

31년 전통 탑여행사가 아낌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직접 모시고 갑니다.

특전 워싱턴 최초 디렉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최고급 호텔 숙박
서울 롯데호텔/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
부산 그랜드조선/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호텔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서울/군산/전주/보성/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
거제/부산/울산/ 경주/삼척/정동진/강릉/속초/제주

고품격 고국일주와 동남아, 일본 여행을 한번에!

다낭 3박+고국 7박 (노옵션) 3차 11/9-11/20 \$3090+항공

일본 3박+고국 7박 4차 11/12-11/23 \$3590+항공

고국 1~6차 모두 제주 빼고 다낭이나 일본을 갈 수 있습니다.
고국+제주/다낭/일본 원하시는 일정으로 선택 가능.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롯데호텔 서울

소노캄 여수

소노캄 거제

롯데호텔 제주

라한셀렉트 경주

롯데리조트 속초

그랜드 조선 부산

연합상품

3박4일 서남권 일출발 \$899+항공

4박5일 동해권 금출발 \$999+항공

5박6일 서남+제주 일출발 \$1499+항공

9박10일 전국일주 일출발 \$2149+항공

3박4일 동경 \$999+항공

3박5일 오사카 \$999+항공

8박9일 일본완전일주 \$2690+항공

TMCI 고국 건강검진

•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555/여 \$595 미국국적 남 \$720/여 \$770

•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 100만원, 여 113만원

•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460

•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현대아산병원/서울대병원/가천대길병원

	방콕/파타야	푸켓	하노이/하롱베이	다낭	대만	싱가폴
동남아 여행 대한항공 한국정유여행 동남아항공 특가세일	3박 5일 \$590+항공 출발: 각주목요일 왓보사원, 콜로세움, 파타야 야시장, 산호섬, 전통수상시장, 플로팅마켓, 황금절벽사원, 코끼리 트래킹, 악어농장, 백만년비위공원, 태국특산물	3박 5일 \$599+항공 출발: 각주수요일 팡이만 해양국립공원, 아프로디테소, 파동야시장, 파파섬, 왓찰롱 사원, 코끼리 트래킹	3박 5일 \$590+항공 출발: 각주수요일 하노이, 엔프, 하롱베이, 하롱테마파크, 호치민명묘, 생활관, 비단광장, 한가동사원, 수상인형극	3박 5일 \$499+항공 출발: 각주일요일 마블마운틴, 호안, 통본강, 일본대원고, 편가시당, 풍물시장, 광조화관, 바나힐국립공원, 후애성, 티엔무사원, 선짜사원, 다낭대성당	3박 4일 \$690+항공 출발: 각주목요일 국립고궁박물관, 자오궁, 101빌딩, 라오저제야시장, 서문정거리, 태로신협곡, 화련 칠성담 해변, 일월담, 구국문화촌, 아류해양 국립공원, 자우면거리	3박 5일 \$790+항공 출발: 각주수요일 국립박물관, 가든스비더베이, 리버월드스, 핸드스웨이브리치, 하지레인, 부기스재래시장, 머라이언공원, 차이나타운, 센토사섬, 실로소비티

성극 대니엘

+아미쉬마켓 당일

\$199

10/1, 11/14, 12/12

가을 단풍 여행

3박 4일 천심/몽뜨랑블랑 \$950
몬트리올/퀘벡
10/7, 10/14

당일 여행 컴베랜드 기차여행 \$159
10/17, 10/25, 10/26 **단체여행 환영**

2박 3일 스모키 마운틴 \$859
10/24

동부관광 탑여행사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미동부 **뉴욕-천심**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토론토 천심/몬트리올/퀘벡 플래츠버그/뉴욕
매주 **일출발** 5박 6일 \$1350
대행버스출발: 9/30, 10/07, 10/14, 10/28

뉴욕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일출발** 2박 3일 \$650

뉴욕 1박 2일 \$399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DC런치크루즈 \$169(주중)/\$199(주말)

서부관광

탑여행사의 자랑 **미서부 일주**
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일출발 8박 9일 \$1500+항공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일출발**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일출발**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일출발**

알래스카 6박 7일 \$1550+항공 **일출발**

엘로스톤 3박 4일 \$930+항공 **일출발**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 돕는 중기 4160곳, 내년부터 세무조사 유예한다

정부, 저출생 대응 추가대책 마련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문호 개방
내달부터 지역 주민들도 이용 가능
윤 대통령 “기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

화장품 제조 중견기업인 마녀공장은 직원 각자의 생활패턴에 맞게 출퇴근하는 ‘완전 자율 출퇴근제’를 운영 중이다. 덕분에 직원들은 원하는 시간대에 업무를 보고, 육아에 필요한 시간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일·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해줄기로 했다. 출산 장려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서 더 많은 기업의 동참을 유도하는 차원이다.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보다 쉽게 쓸 수 있게 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저출생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여성가족부가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받거나,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청 정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회’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유예는 국세청과 협의가 완료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대상은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4100여개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60여개다. 저고위 관계자는 “국세 부과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라는 기간 내에서 국세청이 유예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들 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부산·광주·대전·충북

등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및 수출신통보증 한도 확대 등의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에도 눈치를 덜 보게 된다. 현재는 근로자가 사업주 허가를 받는 식이지만, 앞으로 법을 바꿔 사업주에게 고지만 하면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단축 근무, 반차 등으

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도 개정한다. 지금은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한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문을 지역 주민에게 열기로 했다. 현재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18개 직장어린이집 가운데 정원에 여유가 있는 곳은 당장 다음 달 중 지역민에 개방한다. 정부청사 외 국가기관(328개), 공공기관(138개), 지자체(148개소) 등에서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도 정원에 여유가 있으면 개방할 계획이다.

이는 포스코가 자사 직장어린이집을 그룹사·협력사뿐 아니라 해당 지역 중소기업까지 총 190개사 직원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게 시행 중인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사례를 참고해 마련됐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포스코를 비롯한 5개 기업(마녀공장·한화제약·LG전자·신한금융그룹)과 1개 지자체(서울시)가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7월 출생아 수 7.9% 증가, 17년래 최대=통계청은 이날 7월 출생아 수가 2만60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7.9%)이 1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합계출산율(한 여자가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당초 예상했던 0.68명에서 0.70명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일터인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며 “결국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단순한 비용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남수현 기자

지역 차등 전기료 예고에, 수도권 기업들 ‘비상’

본사가 비수도권에 있는 국내 대형 에너지업체 A사 경영진은 요즘 비상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 전기요금은 더 비싸게, 비수도권 전기요금은 더 싸게 조정하는 식으로 지역별 도매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손실, 사업성 하락, 대응책 등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회사가 보유한 비수도권 소재 발전기 4대(2.5GW)에서 생산되는 전기 도매가격이 킬로와트시(kWh)당 10원만 떨어져도 회사는 연간 4조원의 손실을 본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매출의 두 배에 이르는 손실을 보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오산에서 식품물류회사를 운영하는 이모(43)씨는 수도권 전기요금 인상 소식에 벌써 착잡하다. 이씨는 현재 냉장·냉장 시설이 갖춰진 물류센터 5619㎡(약 1700평)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 포함 월 2억500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 수도권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이 더 오르면 이 비용도 늘 수밖에 없다. 이씨는 “최근 2년 새 전기요금이 50% 올라서 지난번 계약 때 임대료를 더 올려줬는데 재계약 때 전기요금 인상을 핑계로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가 울상이다. 당장 내년엔 도매 전기에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고 2026년엔 소매 시장에도 적용된

다. 에너지업체는 물론이고 전력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소재 제조업체도 손익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고 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수도권에 밀집된 전력 수요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인공지능(AI) 산업이 커지면서 데이터센터가 모여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력 소비량은 확 늘었는데 송전망 부족 등으로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영향도 있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비수도권에서 만든 전기를 수요가 밀집한 수도권으로 보내려면 송전망을 건설해야 하는데 막대한 비용, 해당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송전망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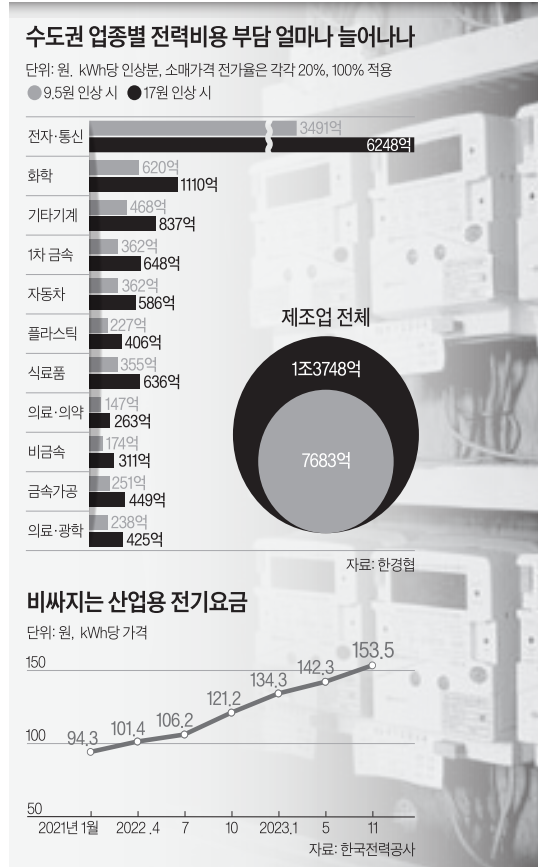
비수도권에 있는 에너지 공급업체는 당장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전력시장은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모든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해 기업, 가정 등 소비자에게 되파는 구조다. 이때 한전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오는 가격이 계통한계가격(전력도매가격)이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전력도매가격이 내년부터는 지역별로 달라진다. 정부는 지역 구분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관련 업체는 “발전소가 모여 있는 비수도권에서 싸게 전기를 사서 비싸게 팔겠다는 의미”라며 “수도권 신규 발

전소 유치를 노린다고 하지만, 이미 비수도권에서 발전소를 가동 중인 업체 입장에선 날벼락”이라고 토로했다.

수도권 제조업체들도 노심초사다. 특히 전력 의존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타격이 크다. 이미 지난 2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51.3% 올랐다.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수도권 제조업체가 부담해야 할 전력 비용 부담은 크다. 수도권 전기요금이 kWh당 9.5원(소매가격 전가율 20%)만 올라도 7683억원의 비용이, 17원(소매가격 전가율 100%) 오르면 1조 3748억원이 는다(표 참조).

업체에선 구체적인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논의 중인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나눠서 요금을 차등하면 대전은 전력 자급률이 3%임에도 비수도권으로 구분돼 전기요금이 저렴해지지만, 전력 자급률이 180%인 인천은 수도권으로 분류돼 더 비싼 전기료를 내야 한다. 조흥중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 구분에 대한 상세한 기준 마련 없이 제도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4시간 시설을 가동해야 하는 반도체 등 전자·통신 업종은 연간 최소 3491억원에서 6248억원의 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표 참조). 화학(620억~1110억원), 1차금속(362억~648억원), 자동차(362억~586억원) 등도 타격이 크다. 류성원



한경협 산업혁신팀장은 “수도권 제조업의 전력 수요는 지난 3년간 연평균 0.2% 감소했지만, 전력사용 비용은 연평균 21.3% 증가했다”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특정 업종에 비용 부담 요소로 작용하지만, 업체의 비수도권 이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벨리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실버스프링 북쪽 워튼 센터(Hi-mart)에서 10분 거리

센터빌 / 찬틀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북쪽/안아름(Hi-mart)과 찬틀리 북쪽에서 각각 5분거리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외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쉽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임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후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연안데일 **703-354-1515**
2층 스토어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 월~토 :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9월 스페셜

최신 제품으로~
업계최초

현재 매장내 체험가능

입점기념 20%세일!

102개의 6열 지압봉

중간 마진의 거품은 소옥~ 빼고

가격은 내리고
성능은 올리고

102개의 지압봉

백돌이 온열지압

온열 지압침대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체온 1C 상승하면 ↑ 면역력 40% 상승

무이자 할부

최고 36개월

지압 침대의 발명자가
최초 설계한
GH 오리지널 제품

GH 온열 지압 침대의 특징

102개의 지압봉 + 2 WAY 시스템 + 1-SHOT 침대

- 업계최초 102개의 지압봉으로 구성
-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 인체 공학적 특수 설계 (지압봉 편심방지 기능 탑재)
- 강력한 파워를 기반으로 한 소음 최소화
-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동작중인 지압봉의 위치표시

지압봉 기계

지압봉 모션

▶ 온열 지압 카우치

▶ 온열 지압 상감 평상

본토 흙침대는 세계 최초로 장판을 덮지 않고 고온에 굽지도 않고, 화학성분을 단 1%도 사용하지 않은 채소를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생향토로 만들어진 '누드 흙판'을 사용한 자연주의 제품입니다.

게르마늄 카우치 싱글침대 평상

~~\$2,900~~ **\$2,300**

~~\$3,000~~ **\$2,500**

본토흙침대 100% 생향토

장운정의

휴표 흙침대 워싱턴 대리점

휴표 흙 침대

해초를 고아 황토로 빚어 만든
 휴표 흙침대와 산소 발생
 특허기술이 만나 탄생한
 산소를 공급하는 흙침대

- 황토에 한약재를 넣고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침대
- 높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침대
- 산소와 피톤치트를 공급하는 침대
- 산림욕 효과
- 슬럼프질 찜질효과





휴표 흙 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휴표 흙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든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전면: 고급 인조 양털

▶후면: 고급대(竹) 자리

원사사이즈
\$1,199

싱글사이즈
\$899

황토세라믹볼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완전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흙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월딘 지정 대리점

월딘 편백 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재밋출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라오스산 히노키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 세일가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간식 반신욕기

임정기념 세일

\$1,799

\$1,499

절찬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3 간단 편리한 작동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간식 반신욕기
거창을 채우고 피곤을 쫓아냄~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몸속까지 시원한 수직 지압 마사지!

다닥터
+ DRUCKTHERAPIE

Made in KOREA

1/40원!

강박반도체의 파워! 발목펌프 자동운동기의 특징!

하루에 5분만 사용하셔도 몸이 달라집니다.
혈압, 당뇨, 혈관질환 개선효과, 오십견, 관절통증 완화 효과

Hand/Wrist Massager
오사키 손목 마사지기 Osaki OA-AA01

손목, 손바닥
손가락
마사지 합니다.

~~\$150~~ **\$129**

NURIEYE-5800
EYE MASSAGER
For your eye health

누리아이 눈 마사지기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

피로한 눈·뻑뻑함
눈곱감·이물감
뿌연시야
눈부심·충혈

Osaki OS-RK181
눈 마사지기

·어머백 마사지
·Shiatsu 지압
·온찜질 / 진동
·USB 충전
·내장 스피커

\$129

★**히트상품**★

마사지건

헤드 진동마사지
딥 티슈 마사지 건

바누 banu
저당 밥솥
밥솥만 바꿨도
탄수화물이 빠진다!

“북, 올초 개성공단 향하는 도로에 지뢰 묻어”

개성공단 교류 때 남측 이용한 통로 남북간 통행 막아 단절 의지 재강조

북한이 올초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경의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남(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경의선 우리 측 구간을 완전히 끊어 놓으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남측과의 단절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25일 “북한이 경의선 도로에 지뢰 매설 등 작업을 한후 북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뢰 매설 작업은 올초 이뤄졌다고 이 관계자

는 전했다.

올해 2월 민간위성인 에어버스가 촬영한 위성 사진에는 경의선 도로 한복판에 8곳에 걸쳐 가로로 길게 흠이 파헤쳐진 모습이 찍혔는데, 이것이 지뢰를 묻기 위한 작업이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의선 도로는 남측으로 2.1km를 가면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이 나오고 북측으로 3.5km를 가면 개성공단 출입구로 이어진다.

이곳은 개성공단이 가동되던 시기 공단 직원들과 남측 정부 관계자가 개성공단으로 넘어가기 위해 이용해 온 통로였다.

이런 도로에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다는 건 남북 간 통행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앞서 김정은은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남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 우리 측 구간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 놓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국가 관계”라고 못 박기도 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최전방서부·중부·동부 전선 군사분계선 부근에도 지뢰를 매설해오고 있다.

정영교·이유정 기자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오른쪽)과 왕추크 부탄 국왕이 25일 대화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부탄 국왕 “한국이 롤모델 국제 금융허브 혁신 이룰 것”

홍석현 회장 만나 프로젝트 설명 “부탄도 한국처럼 발전가능성 커”

“과감한 혁신을 통해 부탄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부탄의 지그메 케사르 남기엘 왕추크 국왕이 25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만나 국제 금융 허브 건설 계획의 청사진을 설명하며 한 말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이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세계 각지의 정·재계 인사 및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 조언을 구해왔다. 이번 방한(9월 22~25일)도 같은 맥락이다. 왕추크 국왕은 “부탄에게 한국은 좋은 롤모델”이라며 “세계 각지의 많은 인사들을 만나왔는데, 한국에도 꼭 와서 지혜를 얻고 싶었다”고 말했다.

왕추크 국왕의 비전은 겔레푸라는 소도시에서 출발한다. 부탄의 인구는 현재 약 78만명, 겔레푸라는 1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왕추크 국왕은 “겔레푸는 특별 행정구역으로 부탄 정부의 세금 및 통화 정책에서 완전한 자율성을 가질 것”이라며 “설계와 건설도 이미 시작했고, 국제공항도 2028년 완공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왕추크 국왕은 “경제 성장이 선행돼야 부탄의 젊은이들도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기에 갇힌 홍콩·싱가포르와 달리 부탄은 동남아와 남아시아를 잇는 가교가 될 수 있다”며 “겔레푸는 실제로 중국과 인도 모두와 지리적으로도 가깝다”고 덧붙였다.

왕추크 국왕은 이 프로젝트를 “겔레푸 마음챙김 도시”라고 명명했다. “경제뿐 아니라, 명상과 영성을 위한 성지로서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석현 회장은 “한국도 한때 은둔의 나라(hermit kingdom)라고 불렸다”며 “부탄도 무궁한 발전가능성이 있고, 이런 장기적 비전을 가진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행운”이라고 말했다.

영국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그는 2006년 26세의 나이로 즉위한 뒤 스스로 절대왕정을 포기하고 입헌군주제를 도입했다. 의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 표결을 하면 국왕을 탄핵할 수 있지만 그의 지지율은 지금도 90%를 웃돈다. 평민 출신의 왕비 제선 페마와의 러브 스토리도 유명하다. 2남 1녀를 두고 있다. 전수진 기자

눈으로 세상 열고… 희망 속에 잠들다

삶과 추억 박승일 전 농구코치

온몸 굳는 루게릭병 23년간 싸워 글자판 활용해 대화하는 법 터득 ‘루게릭요양병원 건립’ 모금 앞장 “많은 분이 뜻 함께해줘 꿈 이뤘다”

23년간 루게릭병을 세상에 알렸던 박승일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가 25일 세상을 떠났다. 53세.

승일희망재단은 이날 “대한민국에 루게릭병이라는 희귀질환을 알리고,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과 많은 환자와 가족을 위해 애써주신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 박승일님께서 23년간의 긴 투병생활을 뒤로하고 소천했다”고 밝혔다.

2m2cm 장신인 고인은 연세대와 기아자동차 실업팀에서 농구 선수로 활동했다. 이후 2002년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 코치로 발탁된 해 갑작스럽게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다.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ALS)은 신체 근육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운동신경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하는 희귀 질환이다. 고인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했다. 팔, 다리 등 온몸이 조금씩 굳어가고, 발병 10개월 뒤에는 양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2004년부터는 목소리까지 잃으면서 신체 중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눈을 이용해 대화했다. 미세한 눈꺼풀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특별한 안구 마우스를 이용했다. 이를 이용해 그는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 자신의 상태를 매일 알리면서 루게릭병에 관한 관심을 환기했다. 하지만 2008년 안구 마우스를 쓸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다.

극도의 절망감에 빠졌지만 그는 희



23년간 루게릭병을 앓았던 박승일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가 25일 세상을 떠났다. 아래는 박대표의 사연을 보도한 2005년 본지. [중앙포토]

망을 놓지 않았다. 마우스 대신 글자판을 이용해 대화하는 법을 터득했다. 한 글자를 짚어줄 때 맞는 글자면 눈을 깜빡이는 방식이다. 이후 2011년 가수 선과 함께 비영리재단 ‘승일희망재단’을 설립해 평생 소원이었던 루게릭 요양

병원 건립을 위한 각종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루게릭병 요양병원은 오는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고인은 지난해 12월 착공식에 엠블런스를 타고 참석하기도 했다. 이날 그는 글자판을 이용해 “이제 해방이네요”라며 감격했다. 고인의 누나 박성자 승일희망재단 상임이사에 따르면, 고인은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이끌어주시고, 또 많은 분이 함께해서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한다. 25일 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승일이 그동안 너무 수고했어. 내가 쏘아 올린 작은 희망의 공이 많은 사람들이 이어가는 희망의 끈이 되었어”라고 추모했다.

통상 루게릭병 환자의 생존 기간은 5년 남짓이지만 고인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 그는 루게릭 진단을 받은 해인 2002년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싶지 않다”며 “루게릭병 환자를 위해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2009년에는 루게릭병과 맞서 싸운 시간을 기록한 『눈으로 희망을 쓴다』(박승일·이규연)를 출간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2005년 고인의 이야기를 담은 기획기사 <루게릭 ‘눈’으로 쓴다>를 보도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고인이 눈으로 쓴 이메일을 그대로 기사에 삽입해 독자가 직접 그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등 인물의 서사에 초점을 맞춰 ‘내러티브 저널리즘’의 지평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보도 이후 고인을 비롯한 루게릭병 환자를 돕겠다는 독자의 후원과 관심이 이어졌다. 빈소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층 10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7일 오전 7시다. 이영근 기자

가왕이 돌아온다, 조용필 내달 정규 20집 발표

‘가왕’ 조용필(사진)이 11년 만에 정규 음반인 20집 ‘20’을 발표한다.

25일 조용필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22일 새 앨범을 발표한다고 깜짝 소식을 전했다.

조용필은 “오랜 시간 준비해 온 20집은 팬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이 있었기에 완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조용필이 낸 가장 최근의 정규음반은 2013년 발표한 19집 ‘헬로’다. 그는 당시 ‘헬

로’와 수록곡 ‘바운스’가 크게 히트하면서 음원 차트 정상에 오른 것은 물론, 23년 만에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는 저력을 뽐냈다.

20집 발표는 당초 작년에 계획됐지만 음악적 완성도를 위해 약 1년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YPC는 “오랜 세월 버린 그의 역량에 새로운 취향, 음악적 도전 정신까지 두루 담아 20집을 완성했다”고 소개했다. 이지영 기자



혈관이 부르는 첫번째 이름

- 전통술임으로 연구 개발된 세종송보감
- 고농축캡슐 타입으로 개발된 GMP 기준 술임농축캡슐
- 임상으로 인정되고 식약처(KFDA)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세종 송보감

- 혈액순환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분
- 당뇨, 혈압, 고지혈증 등 혈관계 건강이 필요한 분
- 혈액순환, 혈관청소가 필요한 분



문의 (703) 256- 7671 | www.sejongbiotech.us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가중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션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배민 망하게 해주세요” 자영업자의 절규

(배달의민족)

59 창간기획
2024 자영업 리포트

배달앱에 발목잡힌 음식점

배달로 음식 팔 때마다 27%씩 때가 재료비·운영비 다 빼면 사실상 손해
교육책으로 음식값에 배달비 없으면 매출액 커져 세금·수수료 더 나

지난 2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마주 앉은 두 평행선은 지독할 정도로 나란했다. 상생협의체라는 이름 아래 모인 배달 플랫폼(이하 배달앱)과 자영업자 중심의 배달앱 입점업체 대표들은 서로를 향해 단 1도도 구부리지 않았다. 벌써 다섯 번째인 그날 회의에서도 진척은 없었다.

지난 7월 이 협의체가 생긴 건 배달앱에 대한 자영업자의 불만이 극에 달해서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은 출범 초기에만 해도 저렴한 이용료를 바탕으로 자영업자의 손발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하지만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배하는 절대자가 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서울 관악구 대학동 음식점 공심의 제상표(45)씨가 한탄했다.

“배달 매출의 40%가 배달 업체와 배달비로 나가요. 2만원 팔면 입금되는 게 1만1000원인데 재료비, 인건비, 운영비까지 빼면 하나 팔아봐야 몇백원이 나 남겠어요?”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황성철(가명·60)씨도 말을 보탰다. “배달앱이 30%를 갖고 가서 어쩔 수 없이 음식값에 배달비를 녹여 넣어요. 우리도 싫어요. 실속 없이 매출액만 올라가서 수수료랑 세금이 덩달아 뛰거든요.”

과장이 아니다. 사업 초기 건당 1000원이던 배민과 쿠팡이츠의 배달 중개 수수료는 매출액의 9.8%로 급등한 상태다. 2만5000원어치 음식을 주문하면 중개수수료 2450원에 배달비 2900원(업주 부담 시), 결제정산이용료 750원, 부가가치세 610원까지 총 6710원이 빠져나간다. 전체 음식 가격의 26.8%다.

사실상 독과점 시장이라 ‘몰려 겨자 먹기’로 가격을 수용해야 한다.

배달앱 간편결제 수수료율도 최대 2~3%, 신용카드 수수료율(0.5~1.5%)보다 갑절이나 높다.

자영업자 간 경쟁을 부추기는 구조의 배달앱 광고도 원성의 대상이다. 대표적인 게 이른바 ‘깃발 꽃기’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에 3대 배달 플랫폼의 스티커가 붙어있다. 중개수수료가 9.7~9.8%까지 오르면서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뉴시스]

로 불리는 배민의 정액제 광고서비스 울트라콜이다. 깃발(광고) 한 개당 월8만8000원(부가세 포함)을 내면 가게 소재지가 아닌 곳의 소비자에게도 가게가 노출된다. 돈을 많이 내면 낼수록 노출 지역이 넓어진다. 우리가게클릭 서비스는 고객이 클릭만 하고 주문을 하지 않아도 광고비가 나간다. 그 대신 가게 이름을 더 많이 노출해 준다. 광고금액을 높게 설정할수록 노출 기회도 늘어난다.

결국 광고비를 더 많이 내야 더 많이 주목받을 수 있는 구조다. 그렇다고 해서 매출과의 연관 관계가 검증된 건 아니다. 자영업자 김성배(가명·46)씨는 “깃발을 11개(96만8000원)나 꽃고 영업했는데 효과가 거의 없었다. 추가 매출액이 깃발값에도 못 미쳤다”고 말했다.

부산물인 ‘리뷰 스트레스’와 ‘배달거지’도 골머리다. 김씨는 “황당한 환불요구가 접수돼도 배달앱에서는 무조건 환불해 주래요. 진상 고객 주문을 사전 차단하고 싶어도 시스템상 안 된대요. 그럴 거면 도대체 수수료는 왜 받아가는 거예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리뷰와 광고로 소상공인에게 싸움을 붙여 놓고 배달앱은 탁자 위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상태”라며 울분을 토했다.

불완전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황성철씨는 “알뜰 배달은 2000원 짜다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 우리

가게에 배달팁 할인 쿠폰을 붙여놔서 100만원이나 손해봤다”며 “항의했더니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고 발뺌하더라”고 주장했다.

네이버·카카오 같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도 ‘묻지 마’식 광고비 출혈 경쟁에 자영업자를 내몰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는 입찰식으로 운영된다. 예컨대 건당 50원을 설정해 두면 하루 100번 클릭이 있었을 때 5000원을 광고비로 내는 방식이다. 금액을 높게 설정할수록 검색 상위에 노출될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는 1월 최대 과금액 제한 장치도 없다.

광고비 산정 구조도 투명하지 않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꽃집을 운영하던 김형태(가명·40)씨는 올 초부터 네이버에 온라인 광고를 했다가 ‘광고비 폭탄’을 맞았다. “광고비가 어느 순간 너무 많이 나와서 매출액을 추월했어요. 더 답답한 건 도대체 광고비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건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가게를 접은 그는 “온라인 광고만 안 했더라도 가게를 조금은 더 오래 할 수 있었을 텐데 후회가 크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허점을 노린 광고·마케팅 사기도 극성이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정진영(가명·45)씨는 “어느 날 우리 지역 배달앱 매니저가 오더니 ‘광고비 일부를 환급해 주겠다’고 제안해 광고했다”며 “그런데 몇 달 뒤 환급이 끊겨서 연락해 보니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더라”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광고 역시 대행사를 자처하는 이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플랫폼 측도 이런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네이버 측에서는 “가입 단계에서부터 사기 주의 고지를 하고 있다. 비공식 마케팅업체로 피해를 봤다면 24시간 신고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했다. 배민 측도 “환급을 미끼로 한 광고 영업은 본사가 아니라 협력사에서 벌어진 불공정 행위”라며 “금지 행위인 만큼 적발 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들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정부는 급하게 지난 7월 상생협의체를 만들었지만,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10월까지 수수료 조정 합의안 등을 도출한다는 목표의 달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자영업자의 불만은 계속 커지고 있다.

폐업의 핵심 사유로 배달앱 수수료를 꼽은 전직 자영업자 박정수(가명·51)씨에게 “자영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게 있느냐”고 물었더니 1초도 안 돼 즉답이 돌아왔다.

“배민 망하게 해주세요. 배민 망하는 거 꼭 보고 싶어요.”

맘스터치 상도역점 점주 황성구(65)씨는 2021년 8월 날벼락을 맞았다. 맘스터치 본사에서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해 온 것이다. 가맹점주협의회 설립을 주도했던 그가 전국 가맹점에 우편물을 보내면서 본사를 비난하는 허위사실을 담았다는 게 이유였다.

본사는 앞서 “허위사실 유포”라며 그해 4월 황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나왔지만 본사는 집요하게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까지 했다. 하지만 모두 기각되자 몇 차례 내용증명을 보낸 뒤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그리고 두 달간 식재료 공급을 중단했다.

5년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절반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다. 계약해지 시 장사를 더 할 수 없는 건 물론이고 2년6개월 치 임대료(월 350만원) 등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했다. 그는 “노후가 비참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고생이 심했다. ‘집을 처분하고 낙향해야 하나’ 하는 생각마저 했다”고 말했다. 황씨는 싸우기로 했다. 식재료 공급 중단 조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일단 영업중단 위기를 넘긴 그는 공정위와 법원에 잇따라 사건을 들고 갔다. 3년간의 투쟁 끝에 지난 1월 공정위에서 승리한 그에게 지난달 29일 법원에서도 남보가 날아왔다. 서울중앙지법은 “맘스터치 본사는 황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황씨는 “이겼지만 아직도 찜찜하다. 아직 본사로부터 미안하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듣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퐁요 속 빈곤’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5175개이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지난해 8759개로 늘었고, 가맹점 수도 2019년 25만여 개에서 2022년 35만 개로 폭증했다. 기술도, 노하우도 없는 예비 창업자들이 가게 자리부터 인테리어, 물품 공급까지 모두 해주는 프랜차이즈로 쏠린 결과다.

하지만 논란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프랜차이즈는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업 규모가 크지 않아 내·외부의 견제·감시 시스템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한 정보 비대칭성은 가맹점주에 대한 본사의 갑질 논란으로 곧잘 이어진다.

본사가 점주를 수익원으로 보는 관행도 여전하다. 상당수 프랜차이즈는 로열티가 아니라 물품 고액 공급 등 이른바 유통 마진(차액가맹금)을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 불투명성도 문제다. 계약 시 예상 매출액과 비용 등 정보를 담은 정보공개서를 주지만 불투명하거나 부실한 경우가 많다. 공정위가 25일 서울 강남구의 더본코리아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도 바로 이런 불투명성, 즉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에 대한 예상 매출액 허위 제공 의혹 때문이다.

1980년대에 이런 갈등을 먼저 겪은 미국은 공개하는 정보의 차원이 다르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미국 버거킹의 사전 정보 제공 서류는 분량이 1200쪽에 달한다. 반면에 한국 버거킹의 같은 서류는 70쪽이다.

특별취재팀=박진석·조현숙·하준호·전민구 기자, 사진 김현동 기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산삼

하늘이 내린 최고의 명약

미국 가장 청정지역 West Virginia에서
저와 현지인이 직접 캐온 야생 산삼입니다.

면역력 | 항암효과 | 당뇨 | 혈압 | 체력증강

1/2 Pound \$600부터

Dealer No. 90-491972 • Permit No. 007669

문의 (571) 236-8591

14800 Rydell Rd., Centreville, VA 22121

우리말 바꾸기

‘고맙다’와 ‘감사하다’

어원을 따져 보면 ‘고맙다’는 ‘존경’과 ‘공경’의 뜻을 품고 있다. ‘고마운 친구’ ‘고마운 분’ 같은 표현은 ‘감사한 친구’ ‘감사한 분’이라고 하면 부자연스럽기도 하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괜한 격식이나 예의를 차리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할 때 어쩌다 “감사합니다”라고 하기도 한다.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친밀감이 덜 느껴진다. ‘감사’라는 말이 일본어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감사’는 중국, 일본과 함께 우리도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한자어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일찍부터 나온다.

비슷한 뜻을 가졌지만 ‘고맙다’와 ‘감사하다’는 조금 달리 쓰인다. ‘고맙다’는 형용사로만 쓰이지만 ‘감사하다’는 형용사로도, 동사로도 쓰인다. 동사 ‘감사하다’는 “그의 도움에 감사한다” “그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가 방문한 것에 감사하고 있다”처럼 쓰인다. ‘그의 도움에 고맙다’ ‘그에게 고마운 모습을’ ‘고맙고 있다’는 어색하다. 형용사 ‘감사하다’는 “호의가 감사하다” “감사한 날이 많았다” “나와 줘서 감사하다”와 같이 쓰인다.

“그에게 감사하다”의 ‘감사하다’는 안 어울린다. ‘고맙다’도 아니다. ‘그가 감사하다’/‘고맙다’여야 한다. 아니면 ‘그에게 감사한다’라야 자연스러워진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명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운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체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특별기고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미래 가치: 한국 감정 문화 시키기



채신 테일러
워싱턴 가정상담소 소장

리를 잡아왔다.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한인들에게 2세대를 위한 교육에 대한 투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함은 물론 한인들의 미국 사회 자리 매김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점을 생각해 볼때 P2P 프로그램의 성공은 한인들의 실제적 필요를 잘 충족시킨 사례라 할 수 있다. 즉, 시대에 적합한 한국인의 가치 (value)를 잘 살린 프로그램인 것이다. 상담 건수가 몇이나 등과 같은 데이터를 넘어 상담에 대한 가치는 물론 개념 자체가 틀린 시대에서 가정상담소를 50여년동안 운영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제 50년이 되어 2세대 3세대를 키워나가는 이 시점에서 워싱턴 가정상담소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가정상담소는 왜 필요한 것일까?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약 30만명의 상담사가 있으며 정식 자격증을 가진 상담사는 2019년 기준 10만명, 2020년 기준 정신과 전문의는 1만4천명이 있다. 82%의 상담사가 백인이며 아시안계 상담사는 4%라고 한다(자료출처= Bright Future). 아직도 백인이 주를 이루는 이 사회에서 설사 한인이라 하여도 백인 중심의 상담 교육을 받은 한인 상담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 미국사회에서 한인 2세 3세 자녀들이 어

디로 누구에게 상담을 받으려 갈까?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특별히 한인의 정신세계를 담고 있는 한, 정, 그리고 열과 같은 한인 본연의 정신을 토대로 삼아서 양의 개인주의에 치우치기 쉬운 상담 문화에 대항하여 한국인의 정신문화를 잃지 않는 건전한 한인 2세대 3세대를 향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상담 문화 발전에 힘쓸 것이다. 즉, 한국적 정서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많은 한인 2세 3세들에게 한인 정서의 양면적 특수성을 알리고 한국적 감정에 기반하는 힐링과 성장을 위한 서양식 감정교육을 효과적으로 혼합한 상담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대표적 감정인 ‘정’은 사람으로도 미움으로도 해석하기 힘든 적어도 두가지 이상의 감정이 섞인 감정 표현이다. 서양에서는 이런 한인 1세대들의 감정 문화를 “바운더리가 없다”고 병리화 할 수 있다. 2세 3세들이 이런 한인 특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1세대인 부모세대를 병리화 시킬 수밖에 없었고, 가족 구성원은 문화적 계리로 인해 더 멀어져 갈 수 있는 것이다.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서구화되어가는 가족문화에 굳건히 한국인의 고유한 감정문화를 살리고 발전시켜 한인은 물론 타 소수 문화권에게도 본이 될 수 있는 상담 문화 건립을 위해 앞으로 다가오는 50년을 준비할 것이다.

부디 독자들께서 오는 29일(일) 5시부터 타이슨 코너 리즈 캠프에서 오는 29일(일) 5시부터 타이슨 코너 리즈 캠프에서 개최되는 50주년 기념 모금 행사에 참석해 워싱턴 상담소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보다 자세히 들어보시길 부탁드리는 바이다.

디지털

테크가 파괴하는 인간성



박상현
오티레터 발행인

자고 했다.

한쪽에서는 군인들이 AI의 결정을 수행한다고 비판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정보를 분석하는 데 AI를 사용할 뿐, 결정 과정에는 사람이 개입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하라리는 어느 쪽이 진실인지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의 기술은 인간이 굳이 개입하지 않고 AI가 결정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

실이라고 지적했다. 뼈빠에 폭약을 숨기고 원격으로 터뜨릴 수 있는 기술이 마침내 사용된 것처럼, AI에 능력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건 단지 시간문제일지 모른다.

하라리는 AI가 인류를 파괴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흔히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장면을 생각하지만, ‘AI 종말론’이 실현된다면 그건 지극히 관료주의적인 모습이 될 거라고 말한다.

시간이 없는 군인들은 AI가 골라낸 목표물을 기계적으로 승인하고, 실적을 내야 하는 은행 직원은 AI가 골라낸 대출신청을 빠르게 승인하고, 보험사에서는 AI가 산정한 금액을, 대학교에서는 AI가 뽑아낸 지원서를 별 의심 없이 승인하는 세상이야말로 인간이 AI의 지시를 받는, 인간성이 파괴된 세상일 것이다.

최근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세력을 정밀 타격하기 위해 뼈빠와 무전기에 숨겨둔 폭탄을 터뜨렸다.

이스라엘이 암살에 평범한 물건을 사용해온 역사는 길지만, 수천 개의 단말기에 폭약을 넣고 일상생활 공간에서 일시에 터뜨리는 건 충격적인 결정이었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무기화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다.

베스트셀러 ‘차피엔스’로 유명한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군이 사용하는 AI를 둘러싼 논쟁을 소개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가 폭격할 목표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AI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 AI의 ‘도움’을 받아 목표물을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AI의 ‘지시’를 받는 것인지 생각해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집 파실 분 - 셀러 스페셜!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최고가 판매 전문 노하우

1. 집값 - 셀러레포트
2. 홈 인스펙션/Class A Contractor
3. 지붕, 거러, 인스텍션
4. 히팅/에어컨 인스텍션
5. 터마이트 검사
6. 홈워런티
7. 현재 소유 보험 리뷰
8. 크레딧 리뷰, 관리 방법

- **패어팩스 싱글 \$795,000**
방 4, 화장 3, 2 레벨 싱글, 로빈슨하이, 495/66/395, 조지메이슨 대학, 트윈부룩을, 전부 업그레이드 리모델링, 새 지붕, 새 가전, 새 HVAC, 새 핫워터탱크, 새 마루, 새 카펫 (아하 방, 홀베스, 우드 fireplace) 산물, 피리오, 워크아웃
- **풀스체지 콘도 \$249,900**
방 1, 화장 1, 전체 리모델링, 495/66/50, 모자익, 단로평메트로
- **스프링필드 벽돌 다운 렌트 \$3,200**
방 3, 화장 3.5, 차고, Rolling Rd/286/95/495, Fort Belvoir
- **센티널 던킨 뒤 오피스 렌트 \$2,100**
1,250 sqft

모든 비즈니스 장소
찾아드림 (매매/리스)

대권도장, 그루밍, 식당, 치킨, 베이커리, 당구장, 바버, 델리, 요거트, 카페, 병원, 치과

센티널 미용실 \$90,000

- ① 프로협상전문가
- ② 공격적 마케팅전문가
- ③ 24/7 언제든지 연락가능
- ④ 신속 정확한 일 처리
- ⑤ 대기 셀러/바이어 다수 보유
- ⑥ 클로징 후 철저한 지속 관리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뉴진스도 나도 하이브 나가겠다 한 적 없어, 그건 누명”

전쟁의 시작은 지난 4월 22일. 하이브가 내부감사 결과 민희진 전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이 하이브에서 독립해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는 방안을 시도했다고 발표하면서다. 민 전 대표는 이후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반박했고 양측은 법적 대결로 돌입했다.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지난 10일 뉴진스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였다. 뉴진스 멤버 민지는 “하이브는 25일까지 민 전 대표님을 복귀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어도어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 연장을 추진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대표이사 복귀”를 재차 요구하며 제안을 거부했다. 지난 14일과 25일 민 대표를 서울 마포구의 작업실에서 두 차례 만나 그녀의 입장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뉴진스가 최종 시한으로 제시한 25일이 됐지만, 하이브는 거부한 셈이다. 이후 계획은 독립인가?
“뉴진스도, 부모들도, 나도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려 왔지만 단 한 번도 하이브를 나가겠다고 한 적이 없다. 나날 생각이 없는데 독립을 시도한다고 한 건 하이브다. 4월 22일 하이브의 불법 감사부터 시작해 허위 사실로 누명을 씌우고 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5년간 뉴진스 프로듀싱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최근 빌보드 칼럼니스트 제프 벤저민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하이브의 PR 대행인 TAG가 보낸 자료가 나에 대한 비방으로 가득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바보가 아니고서야 뒤에서 그런 자료를 뿌리는 회사의 제안을 받을 수 있을까.”

-8월 어도어가 이사회를 열어 주주 간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대표이사를 교체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희망한 날짜였고, 충분히 논의했다”고 했다.
“협의된 안건이 아니다. 이사회 불과 3일 전에 통보받았다. 출장이 있어 이사회 일정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화상으로 참석해 해임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프로듀싱 업무를 맡겠다고 일방 통보하고 의결을 강행했다. 이사회는 나를 포함해 5명으로, 하이브 측이 4인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다.”

-해임 사유가 뭔가.
“납득할 뚜렷한 사유가 없었다. 상호 신뢰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지점을 강조하더라. 하이브의 최초 투자비는 160억원이다. 어도어는 2022년 뉴진스가 데뷔한 뒤 2023년 1분기에 흑자전환했다. 2023년 말 당기순익은 265억원으로 투자금을 넘어섰고, 뉴진스라는 브랜드로 회사에 무형의 가치를 남겼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중 가장 성장세가 컸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현재 업계 경험 없는 인사를 새 대표로 세우고 이사진을 구성했다. 무엇보다 내가 하이브(당시 빅히트)에 합류할 당시 방시혁 의장이 먼저 제안하고 약속했던 ‘민희진 레이블’에 대한 독립성 보장 내용과도 전혀 다르다. 이는 당시 카카오톡 대화 기록으로도 남아 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서는 2026년 11월까지 대표이사 임기가 보장되고,

이후 민 전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주식의 75%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하이브는 지난달 27일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면서 양측 간에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정작 하이브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엔 ‘찬탈’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 법원에는 차마 제출할 수 없는 여론 호도용 감정적 용어라는 증거다. 난 8월 27일까지 어도어의 대표이사였다. 경영권을 탈취한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다.”

-하이브와 갈등을 벌이는 것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풋옵션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돈이 목적이려면 이렇게 괴롭고 지루한 싸움을 감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 애초에 하이브의 행태에 이의 제기하지 않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었다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했다. 지난 5월 나를 해임하려 했던 임시주총에 대한 가처분 승소 이후 하이브로부터 돈을 줄 테니 받고 나가라는 협상안이 변호사를 통해 들어오기도 했다. 하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었기에 거절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 빌리프 랩에서 지난해 데뷔한 걸그룹 아일릿

이 뉴진스의 안무 콘셉트를 카피했다고 문제를 수차례 제기했다고 한다. 민 전 대표는 그것이 하이브가 자신을 공격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이유가 뭐라고 보나.

“사태의 본질은 회사 발전이나 시스템 개선 같은 거창한 이유가 아니다. 자회사 사장이 모회사의 심기를 대놓고 거스른 데 대한 공개 처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블랙코미디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가 떠올랐다. 겉으로는 엄중하고 거창한 분단의 참극으로 비쳐졌지만 실상은 지극히 인간적 갈등에서 비롯된 우발적 감정으로 빚어진 촌극. 지금 이 상황도 그렇다.”

-어도어를 하이브에서 독립시키려 했다고 한다. 배



■ 14일 서울 마포구의 작업실에서 만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4월과 5월 기자회견에서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뉴시스]

임이라는 혐의도 제기했다.

“하이브가 가진 어도어 지분이 80%고, 내가 가진 지분은 17.8%다. 어떻게 독립을 시도하나. 월급 사장이 계약 기간 동안 개인의 이득을 완전히 보장받기 위해, 모회사의 눈치를 보며 뉴진스가 받는 불이익에 대해 항의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어도어에 대한 배임 아닌가.”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발언, 패션 등이 화제가 됐다. 전략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나는 외워서 말하는 타입이 아니다. 짜여진 각본이었다면 프로듀서가 아니라 연기자를 했어야 한다. 기자회견은 당일 오전 내가 결정했다. 변호사들도 처음엔 반대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복귀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관계가 각별한 것 같다.



그들 뉴진스 멤버들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요구한 마감시한인 25일 서울 하이브 사옥 앞에 군조 화환이 놓여 있다. [뉴시스]

“업계에서 20년간 활동하면서 제작자로서 어떤 방식으로 리드하는 것이 어떤 아티스트들의 인생을 위해 좋을지 고민이 컸다. 그런 고민에서 나온 뉴진스는 내 머리와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나 마찬가지다. 좋은 것은 다 해주고 싶은 마음 외에도, 제작자로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대안적 관계를 제시하고 싶은 바람도 컸다. 이 도전과 시도를 쉽게 포기하기 싫다.”

민 전 대표는 SM엔터테인먼트에 그래픽 아티스트로 입사해 이사까지 승진하며 엔터업계의 ‘흙수저 신화’로도 불린다. 레드벨벳, 샤이니 등의 뮤직비디오를 통해 세계관 도입이나 키치적이고 비유적 상징 등으로 호평을 받았다. K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다.

-뉴진스는 ‘걸크러시’를 앞세운 최근 흐름을 역행하는 데도 성공했다.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와 청순한 소녀 이미지로 성공을 거뒀다.

“성공의 개념을 단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남이 했던 방식으로 남다른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기획자이자 제작자로서 정말 하고 싶은 걸 실현해 보고 싶었다. 뉴진스라는 팀에는 20여 년간 업계 종사하며 느낀 개선하고 지향하고 싶었던 바를 모두 담고 싶었다. 경영과 프로듀싱을 통합했기에 가능했던 성과다.”

-제작자로서 영감을 주로 얻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인가.

“어렸을 때 집의 모든 벽면이 책장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부모님이 맞벌이로 바쁘셨는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책을 좋아했던 제게 매일같이 새로운 책을 사다주셨다. 그 덕분에 초등학교 때부터 책장에 꽂혀 있던 안톤 체호프나 셰익스피어, 카프카 등을 자연스럽게 접했다. 또 아버지의 LP 덕에 조르조 모로더나 프랑시스 레를 알게 됐고, 안토니우 카를루스 조빙 같은 뮤지션의 음악에 빠져 살았다. 밤늦게까지 영화를 보는 내게 부모님은 어떤 잔소리도 하지 않았다.”

-SM엔터테인먼트에 입사했으니 아이돌이나 가요에 관심이 많을 줄 알았다.

“전혀. 사실 입사하기 전까지는 아이돌에 관심을 가져 본 일이 없다. 가요라면 예전 노래들, 빛과 소금, 산울림, 김현철이나 인디 음악에 관심이 있었다. SM엔터테인먼트에 입사했던 건 거대 시장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 포부를 펼쳐 보이고 싶어서였다.”

2002년부터 K팝을 지켜봐 왔던 그녀는 K팝 성공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그는 4월 기자회견에서도 ‘팬덤에만 의존하는 상술이나 초동 부풀리기(밀어내기)’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K팝이 황금기를 맞이했는데, 지속가능성에 의문 부호가 계속 따라다닌다.

“문화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이 만들어 가는’ 일이다. ‘산업’이라는 말에 현혹돼 태생적 본질을 잃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허울 좋은 시스템이 그럴듯해도 사람이 하는 일은 결국 ‘진심’으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세상을 바꾼 결정적 한 방은 전부 그것에서 비롯되더라.” 유성운 기자



메디케어!

풍부한 경험과 신뢰의 에이전트

프라임 보험(조앤김)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프라임 보험(조앤김)
상담전화 **(703) 861-9923**
14641 Lee Hwy #D3, Centreville, VA 20121
7535 Little River Tpk.,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Licensed Agent

[메디케어 무료신청]

1959, 1960년생이신 분들
65세 이후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약값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LIS 신청

• 눈높이 상담 • 쉬운 설명 • 보험료 및 의료혜택 비교

상담 내용	파트 A & B	파트 C	파트 D
	서플리먼트, 플랜 A,B,G,K,L,N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들	
	이중 특별 필요 플랜		메디케어 (파트 A, B) + 메디케이드 (모든 메디케이드 대상) 추가 혜택 VA 지역, MD 지역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Currently we represent [X] organization which offer [X] products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1-800-MEDICARE, or your local Statw Health Insurance Program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어르신 모십니다!



“정성과 돌봄이
다릅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양질의 한식과 간식
- 최고의 시설 (1인/1실)
- INOVA 병원 5분 거리
- 한국 TV 시청 가능
-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문의

703-980-9890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 케어

교통 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LOTTE PLAZA market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SEP. 26th - OCT. 3rd, 2024

실속가득 · 알뜰세일
가을철 입맛 살리는
★ 한국의 대표음식 ★

담백하고 부드러운 앵거스 양념 순살 불고기 & 언제나 아삭하고 맛있는 비비고 포기김치
MARINATED ANGUS BEEF KNUCKLE - TENDER (BULGOGI) / ALWAYS CRUNCHY AND DELICIOUS BIBIGO WHOLE CABBAGE KIMCHI



BUY 1 FREE
GET 1 하나사면 하나공짜!

앵거스 양념
순살 불고기 \$10⁹⁹ LB
MARINATED ANGUS
BEEF KNUCKLE
TENDER (BULGOGI)

ENCORE SALE

한번 더~ 앵글세일!

비비고 포기김치
Whole Cabbage Kimchi

~~\$25⁹⁹~~
\$14⁹⁹ 2 KG



편집 중 오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사정에 따라 조기종결 또는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Richmond, VA
7801 W Broad St.
Richmond, VA 23294

Sterling, VA
30 Pidgeon Hill Dr., Sterling,
VA 20155

Centreville, VA
5900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Chantilly, VA
33950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51

Annandale, VA
3204 Port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Ashburn, VA
43900 Fairview Hunt Plaza
Ashburn, VA 20147

Herrndon, VA
4901 Elden Street
Herrndon, VA 20170

Ellicott City, MD
5802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Catonsville, MD
16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Rockville, MD
7002 Veas Mill Rd.
Rockville, MD 20851

Gaithersburg, MD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과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파이낸스 & 연예/문화 Sports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September 26, 2024 C

빙·난방 **UNIVERSAL** **덕트 클리닝**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 Implant Center, Inc.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 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당한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 303-4556 / t. (703) 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도심 근교 친환경 스마트홈 관심 높다

최근 부동산 시장 핫 키워드
최근 부동산 시장 트렌드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키워드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다운 사이징을 필두로 친환경, 웰빙 공간 등이 있다. 특히 팬데믹 여파로 시작된 다양한 변화들은 이제 일시적 흐름이 아닌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트렌드를 키워드별로 알아봤다.

▶**다운사이징**
베이비부머의 다운사이징이 가속화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집을 줄여 이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요인이지만 이동과 관리가 편한 작은 규모의 자택에서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전미은퇴자협회(AARP) 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40% 이상이 다운사이징을 고려하고 있으며 다운사이징 고려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런 미국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의 다운사이징으로 인해 중소형 주택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질로(Zillow)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중소형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는데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다운사이징 수요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들은 다운사이징 시 주택 크기뿐만 아니라 병원과의 의료기관 등 헬스케어 인프라와의 접근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근무가 확산되면서 도심 외곽의 자연 친화적이며 넓은 주거공간을 가진 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unsplash.com 제공]

베이비부머 다운사이징 갈수록 늘어 AR, VR, 버추얼 홈투어 서비스 인기

▶**도심 근교 주택**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재택근무가 팬데믹 이전보다는 늘어난 상황. 그러다 보니 팬데믹 이후에도 꾸준히 집값이 저렴한 도심 외곽에 대한 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 글로벌 워크플레이스(Global Workplace Analytics)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까지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 비율이 전체 직업의 30%를 넘어섰다.
따라서 앞으로도 도심 외곽 지역 개발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건축개발업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브룩킹(Brookings Institution)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대도시를 떠나 도심 인근 교외로 이주한 인구가 올해 상반기까지 20% 이상 증가했으며 이들은 주로 넓은 주거 공간과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이런 변화는 교외 지역의 집값 상승 및 이 지역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친환경 주택**
가속화되는 기후 변화와 연료비 상승으로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 및 이중창문이 설치돼 있거나 단열재 보수를 마친 주택에 대한 집값도 상승했다. 연방에너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어진 신규 주택 중 에너지 고효율 주택(energy-efficient home)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주택건설협회(NAHB)에 따르면 주택 구매자의 80% 이상이 에너지 효율성이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고효율 주

택에 대한 인기는 최근 많은 주정부가 에너지 효율성을 갖춘 주택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한몫했다. 현재 가주 정부는 에너지 절약형 주택에 대해 최대 30%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홈**
스마트홈은 최근 부동산 시장 트렌드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PwC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홈 시스템을 갖춘 매물이 시장에서 5~10% 정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스마트홈 시스템에는 보안시스템, 조명 및 온도 조절 시스템, 스마트가전 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거주 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줘 이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바이어들에게 가장 인기를 끄는 것은 스마트 보안시스템.
이주현 객원기자
▶ 3면 '스마트홈'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당신보다 당신의 집을 더 잘 아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저희 슈나이더 내집장만 부동산 팀은 열심히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의 프로로서 일 잘하는 부동산 입니다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승경호 추천 매물

상가 임대수입 발티모어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아파트	상가 임대수입 DC - 식당입주한 건물 2백6십만불 3000SF 복층, 월순수입 \$11,000	스시 식당 알링턴 버지니아 판매가: 50만 1900 SF, Rent \$8900 연매상 \$1,058,000	에난테일 최고의 상권 단독건물 K-Market 건너편 2500 SF, 식당이나 커피샵, 맥주 전문점 하면 좋은자리 임대 문의 바람	버지니아 상가건물 3백10만불 1.8에이커 Cap Rate 7%, 입차 5개 연순수익 \$218,000
상가 임대수입 맥클린, 단독건물, 4백5십만불 6,000 SF	상가 임대수입 상가 8백만불, 비엔나, 버지니아 연순수익 52만불, 8백만불	Beer & Wine Shop 35만불, 주1만8천불 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VA, 조건부임대계약	DC 유명 델리 판매가 55만불 주인없이 운영 정부입주 건물 1층 순수익 = 주인운영 없이 1만불	
		Beer & Wine Shop 50만불, 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MD, 조건부임대계약		

주재원, Start-up 회사, 한국공기업, 사무실, 공장, 창고 등
전문부동산 다량의 기업 성사 기록보유, 미국 전역 가능합니다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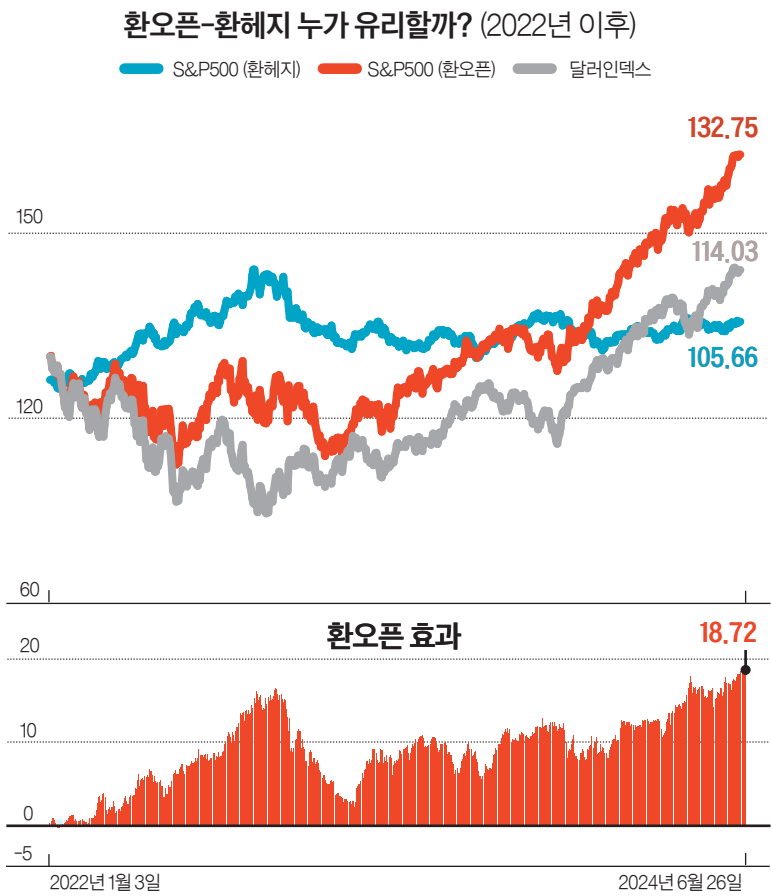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헛갈리면 “반·반”… 투자 전문가도 그렇게 환헤지 하더라

(채권 환헤지·주식 환오픈)

아? 수익률이 왜 마이너스지?
내가 산 해외 주식이 주가는 별로 변한 게 없는데, 자고 일어나니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된 경험을 한 투자자가 적지 않다. 범인은 환율. 최근 1400원을 넘보던 달러당 원화값(이하 원·달러 환율로 표기)이 1300원 초중반까지 떨어지면서 환차손이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내가 산 해외의 주식 가격이 올라도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이익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이후에 미국 증시의 대표 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에 투자한 경우, 환오픈이 환헤지보다 2배나 많이 벌었다. 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환율의 변동까지 신경 써야 하는 이유다.



환헤지 비용 계산해보니 ※5월말 기준				
KBSTAR 미국S&P500 ETF				
총보수 (A)	기타비용 (B)	합성 총보수 (A+B)	매매·중개 수수료율(C)	총 (A+B+C)
0.021	0.090	0.110	0.034	0.145
KBSTAR 미국S&P500 ETF (H)				
총보수 (A)	기타비용 (B)	합성 총보수 (A+B)	매매·중개 수수료율(C)	총 (A+B+C)
0.021	0.230	0.250	0.055	0.306

▶ 약 0.14%포인트가 환헤지 비용 추정

	기준금리	현재	1년후
원화(A)	3.50%	1350	1397.25
달러(B)	5.50%	1	1.06
1달러당 원화(A/B=C)	-	1350	1324
스왑포인트(D)*	-	-	-26
환헤지비용(D/C)	-	-	-1.9%

*스왑포인트=(현물환(현재달러)과 선도환(미래달러)의 차이)
▶ 대략 미국 기준금리와 한국 기준금리 차이(2%포인트)만큼이 환헤지 비용
자료: KB자산운용



머니랩 ETF 연구소에서는 환헤지의 원리와 아주 쉬운 비용 계산 방법을 소개한다.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고 있는 만큼, 환율 예측이 쉽지 않더라도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이에 자산운용사의 전문가들과 함께 환오픈·환헤지 전략을 알아봤다.

◆**올타리?** 헤지(H)와 언헤지(UH)= 헤지는 영어로 ‘올타리(hedge)’란 뜻이다. 환율 변동으로 생기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타리로 췌기를 막아 가격을 가둬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투자한 자산의 가격 변동만 수익률에 반영된다. 반대로 환오픈(open)은 말 그대로 올타리를 활짝 열어 환율 변동에 노출시키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 지금보다 원·달러 환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원화 가치 하락, 달러 가치 상승) ‘환오픈’ 전략을, 반대로 앞으로 환율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한다면(원화 가치 상승, 달러 가치 하락) ‘환헤지’ 전략을 선택하면 된다. 쉽게 예를 들어 1330원 수준인 환율이 1400원으로 갈 거라 생각하면 환오픈을, 1200원대로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환헤지를 하면 된다.

통상적으로는 금리가 오르면 해당국 통화는 ‘강세’가 된다. 미국은 코로나19로 한동안 저금리 정책을 펴고 재정을 풀다가 인플레이션이 불거지자 빠르게 금리를 올려 왔다. 이에 따라 2022년 이후에는 달러가 강세였던 만큼 환오픈 투자가 더 큰 이익을 봤다. S&P500 기준으로 2022~2024년 상반기까지 환오픈으로 투자한 사람은 32% 수익률을 냈지만, 환헤지를 한 사람의 수익률은 14%밖에 되지 않았다. 환율 효과로 수익률이 2배 넘게 차이 난 것이다.

하지만 늘 환오픈이 유리했던 건 아니다. 조금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2017년 1월~2018년 3월까지 S&P500의 환오픈과 환헤지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환헤지로

투자한 사람은 18%를 벌었지만 환오픈 투자자는 4%밖에 벌지 못했다.

◆**올타리 치기엔 비용이 든다**=무엇보다 환헤지는 공짜가 아니다. 환헤지에 내야 하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실제로 매니저들이 헤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 비용은 상장지수펀드(ETF) 보수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RISE 미국 S&P500 ETF’의 (UH:언헤지)와 (H:헤지)의 비용을 살펴보면 총보수 비용이 UH는 0.11%이고, H는 0.25%다. 0.14%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을 대략 헤지를 위한 계약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큰 두 번째 ‘숨은 비용’이 있다. 환헤지를 하는 방법을 간단히 보면, 현물환율(S·현재 환율)로 환전해 해외 자산을 매입하고 선도환율(F·미래의 환율)로 환헤지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을 통해 미래 시점 원·달러 환율을 선도환율(F)로 고정해 환율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 이때 1년 뒤 선도환율에는 약 1년간의 무위험 이자율(기준금리) 등이 반영되는데, 각 통화에 반영되는 두 국가의 이자율 차이 만큼(스왑포인트)이 환헤지 비용으로 수익률에 영향을 준다.

복잡해 보이지만 비용 계산은 간단하다. 헤지하려는 통화 국가의 기준금리와 한국(원화) 기준금리 차이를 구하면 된다.

원·달러 환헤지를 생각해 보자. 한국 기준금리(3.5%)와 미국 기준금리(5.5%)가 약 2%포인트 차이가 나므로, 환헤지를 위한 기회비용도 연 2% 내외가 된다. 반면에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낮은 통화와 헤지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익(프리미엄)’을 볼 수 있다.

◆**복잡한 헤지상품, 비용 꼭 따져 봐야**=최근엔 달러뿐만 아니라 엔화 등 각국의 통화가 요동치면서 다양한 외환 전략을 구사하는 상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비용을 더 꼼꼼히 살펴야 한다.

대표적으로 일본에 상장된 미국 국제

에 투자하는 상품들이다. 채권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차익도 먹고 향후 일본 금리가 올라가 엔화 강세가 되면 추가 차익도 얻을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는 상품들로, ‘일석이조’ 같지만 복잡한 헤지 전략이 들어가 숨은 비용이 만만치 않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상품들은 원·엔 환오픈 상품인데도 ‘(H)’가 붙어 있다. 엔화와 원화는 환오픈이지만, 엔·달러는 환헤지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미국 기준금리와 일본 기준금리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꽤 큰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5.5%이고 일본은 0.25%다. 따라서 이 상품의 연간 환헤지 비용은 약 5% 내외에 달한다.

◆**환오픈-환헤지 똑똑히 활용하기**=그렇다면 개인투자자들은 환오픈과 환헤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본부장에게 물었다.

▶환오픈이 기본, 환헤지는 역사적 고점에 서만(금정섭 한화자산운용 본부장)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는 환오픈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나라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 나라 기업의 기초체력(펀더멘털)과 거시경제 체력(매크로) 즉, 기업과 국가에 동시에 투자하는 것이다. 다만, 달러 가치가 극단적으로 높다면 환헤지를 고려해볼 수 있다. 예컨대 달러가 1450~1500원까지 올랐다면 역사적으로 아주 고점이라 볼 수 있다. 이 경우 잠시 환헤지 ETF를 활용할 수 있다.

▶주식은 환오픈, 채권은 환헤지(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담당)

주식은 환오픈, 채권은 환헤지가 일반적인 전략이다. 국민연금도 동일한 전략을 활용한다. 미국 주식의 경우 달러가 기축통화이므로 중장기적으로 환오픈을 하면 ‘안전판 역할’을 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김연주 기자

» 4면 ‘환차손’으로 이어집니다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2024 여름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매매 / 렌트	금액	설명
주 택	McLean, VA	\$900,000	현재 3년 렌트 (\$4,250) 렌트 끼고 살 투자자. 매달 25일경 기관에서 다음 달 렌트비를 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함
	Fairfax, VA	\$3,500	Mantua ES, Frost MS, Woodson HS 권 상급하우스 렌트. 부엌, 화장실 upgrade 된 집. 10월 1일 입주 가능
사 업 제	델리샵 (DC)	\$150K	DC 내 좋은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 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운 패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세탁소 (MD)	\$300K	MD, 코로나 때 주변 세탁소 문 닫아 장사가 더 잘되는 세탁소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개인·비즈니스·채터 7·채터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채터 5·채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주택 세제 완화 ‘2라운드’… 1주택자 5만 명 종부세 벗어나나

안장원의
부동산노트

부동산전문기자

정부와 여당이 이전 문제인 정부 때 급격한 세 부담 증가로 인해 ‘세금이 아닌 벌금’ ‘세금 폭탄’이라는 비난까지 받은 보유세제(재산세+종부세)의 몸통을 손본다. 지난 국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종부세 다주택자 증과 폐지를 다시 추진한다. 주택 증여 세금도 줄이기로 했다. 주택 세제 완화 ‘2라운드’다.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가 수혜를 많이 입을 전망이다.

공시가 상승률 절반 이하로 내려가
정부는 지난 12일 종부세 가격을 매기는 방식을 뜯어고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공인가격인 셈인 공시가격은 60여 가지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쓰이는데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주택분 재산세 부과 건수가 1949만 건이고 지난해 주택 종부세를 낸 사람이 35만명이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다. 정부는 앞서 공시가격 중 실제 세금 계산에 반영하는 금액(과세표준)과 세율을 낮춰 보유세 부담을 줄였다. 이번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은 보유세의 뿌리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합리화 방안에서 공시가격을 부풀려온 문 정부의 현실화 계획을 접고 전년도 대비 시세 변동률만 반영하기로 했다.

현실화 계획은 문 정부가 2020년 부동산 유형에 따라 평균 53.6~69%인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2035년까지 90%로 올리기로 한 로드맵을 말한다. 현 정부는 출범 1년 차인 2022년 현실화로 드맵을 중단해 지난해와 올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올해 3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현실화 계획 폐지를 밝힌 데 이어 이번에 구체적인 폐지 이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계획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90% 현실화율 도달 기간이 짧아 연평균 인상 폭이 큰 고가주택이 혜택을 많이 본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연평균 현실화율 인상 폭이 시세 9억원 미만은 2.19%포인트고, 15억



정부와 여당이 재산세 등 보유세와 증여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여당 종부세 완화안 단위: 원, ※공시가격 합계 40억원 기준				
구분	1주택자		3주택 소유자	
공제금액	12억	15억	9억	9억
세율(%)	1.3	1.3	2	1.3
종부세	1540만	1300만	2270만	1720만

자료: 김종필 세무사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중단 단위: %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로 시세반영률이라고도 함. 자료: 국토부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현실화 계획	실제 적용	현실화 계획	실제 적용	현실화 계획	실제 적용
2020년	69	69	53.6	53.6	65.5	65.5
2021년	70.2	70.2	55.9	55.9	68.6	68.6
2022년	71.5	71.5	58.1	58.1	71.6	71.6
2023년	72.7	69	60.4	53.6	74.7	65.5
2024년	75.6	69	63.6	53.6	77.8	65.5
2025년	78.4		66.8		80.8	
...						
2028년	85.6		75.7		90	
...			...		90	
2030년	90		80.6		90	
...	90		...		90	
2035년	90		90		90	

원 이상에선 2.94%포인트다. 국토부가 올해 시세 변동률을 지난해와 같은 1.52%로 보고 모의 계산해봤다. 현실화 계획대로라면 시세 9억원 미만 3.71%(1.52%+2.19%), 15억원 이상 4.46%(1.52%+2.94%)인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

이 모두 1.52%로 내려간다. 올해 공시가격 4억800만원(시세 6억원)과 15억600만원(시세 20억원)의 내년 현실화 인상분이 각각 900만원, 4300만원이다. 인상분 제거에 따른 보유세 감면액은 각각 1만5000원(현실화 계획을 반영한 세금의 3.1%), 22만원(5%)이다.

정부는 관련 법을 가을에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실화 계획은 정부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문 정부가 법에 못 박은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1월부터 내년도 공시가격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법 개정 여부가 정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계속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 20억 1주택 종부세 절반 ‘뚝’
현 정부에서 한차례 이뤄진 종부세 완화가 추가로 추진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1주택자 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세율을 더 높은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들로 인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종부세 납부 부담이 평범한 중산층에게까지 전가되면서 이미 최초 입법 취지가 무색해져 버렸다”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1주택자 공제금액 상향과 다주택자 증과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 정부가 못다 이룬 종부세 대폭 완화의 바통

을 여당이 이어받은 모양새다. 정부는 2022년 공제금액 상향(1주택자 11억→12억원, 다주택자 6억→9억원), 다주택자 증과 폐지, 기본세율 인하(0.6~3%→0.5~2.7%), 다주택자 세 부담 상향 하향조정(300%→150%)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제금액 상향, 세율 인하, 세 부담 상향 조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다주택자 증과는 ‘7부 능선’만 넘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 중 공시가격 합계금액이 29억원 이하만 증과가 폐지됐다.

여당은 다주택자 증과 완전 폐지를 목표로 1주택자 공제 확대를 야당에 당근으로 제시한 셈이다. 야당 내 일부 종부세 완화 기류를 염두에 둔 것이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1주택자 공제금액이 15억원으로 올라가면 공시가격 15억원까지 종부세(최고 69만원)가 없어진다. 공시가격 20억원 종부세는 228만원에서 115만원으로 반토막 난다.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이 똑같이 40억원인 1주택자와 3주택자는 공제 확대와 증과 폐지로 각각 240만원과 55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를 납부한 1주택자 11만 명 중 공시가격 15억원 이하가 5만 명 정도다. 공시가격 총액이 29억원이 넘어 증과 적용을 받은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600명이다.

10억 주택 증여세 총 4000만원 줄어
정부는 7월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대로 증여세를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과세표준(증여액-공제금액) 구간과 세율을 조정한다. 이번 완화안으로 줄어드는 세금이 많지 않지만 올해 도입된 혼인·출산 공제 신설과 합치면 세금이 확 줄어든다. 혼인·출산 공제는 각각 1억원까지, 합쳐서 최대 1억원이다. 현금만이 아니라 부동산 증여에도 적용된다.

10억원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지난해 2억1825만원에서 올해 혼인·출산 공제를 받으면 1억8915만원으로 2910만원 줄어든다. 이번 완화로 다시 970만원 감소하면서 지난해보다 세 부담이 3880만원 감소한다.

이우진 세무사는 “혼인 공제는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출산 공제는 출산(임양 포함) 후 2년까지 적용된다”며 “자녀 증여 시점은 혼인이나 출산 전·후로 잡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보유세의 공시가격 현실화 거품이 사라지고 종부세와 증여세 부담이 더 가벼워질지, 물가를 국회에 달렸다.

▶ 1면 ‘스마트홈’에서 이어집니다

유명 보안업체인 ADT는 스마트 보안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통계 플랫폼인 스타티스타(Statista)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 가구 약 30%가 스마트홈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올해 말까지는 이 비율이 4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

망했다.

▶ 웰빙 공간

올해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군 키워드 중 ‘웰빙 공간’도 빼놓을 수 없다. 팬데믹 이후 많은 홈오너들이 건강과 웰빙을 위한 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홈집, 홈사우나, 홈스파 등 주택 내 웰빙 공간을 만드는 것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웰빙 공간을 갖춘 주택이 일반 주택보다 약 15% 더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버추얼 홈투어

팬데믹을 거치면서 비디오를 통해 리스팅된 집을 둘러보는 버추얼 홈투어(virtual home tour)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리스팅 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러들도 크게 늘었다. 그리고 현재 이 버추얼 투어는 단순히 비디오로 홈투어를 하는 수준을 벗어나 가상 현실(VR)과 증강 현실(AR) 기술을 활용한 단계로까지 발전했다. 특히 AR 또는 VR를 활용한 버추얼 홈투어는 해당 매물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해외나 타주에 거주하는 바이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주현 객원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질로우 프리미어 에이전트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1,250,000

**방4/ 화3.5/ 차고2.
Many Upgraded.
** 주인이 잘 관리한 집.

페어팩스 싱글홈

\$750,000

**방4/화3.
Ranch 스타일. 0.2 Ac.
** 굿로케이션, 조용한동네.
Move-in Ready

페어팩스 타운홈

\$699,000

**방3. 화 255/ 차고 2
** Many Upgraded
(지붕. HVAC. 워터허터. Bathrooms)

센터빌 타운홈

\$569,000

**방4/ 화3.5/ 2 Assigned. 세지붕.
** 지하 Full Bath. Walkout.
업그레이드 Bath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FAIRFAX REALTY 50M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SELFOTO STUDIOS 나만의 사진관

가을 특선 9월 한달 동안
사진 5' X7' 인쇄 무료 &
촬영시간 10분 추가 서비스!!!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커플 사진 | 반려 동물 사진 | 영정 사진 | 아기 사진 | 기념일 사진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추억만들기!!!
나만의 맞춤형 사진관을
경험해보세요!!
인생 샷 찍어보세요!

온라인 예약
www.Selfotostudios.com

서울은 빌라도 오른다 7월 2.68%로 4년새 최고 아파트값 급등 풍선효과

전세사기 여파로 크게 위축됐던 빌라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단기간 급격히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지역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실거래가지수가 전

월 대비 2.68% 오르면서 2020년 6월(2.74%)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7월 빌라 상승률은 서울 아파트 상승률(2.23%)도 웃돌았다. 시장에 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해 들어 단기에 급등하다 보니 일종의 풍선효과로 빌라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한다. 7월 서울 빌라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1만2783건으로 2021년 5월(1만3135건) 이후 가장 많았다. 작년 12월(4073



건)과 비교하면 세 배가 넘는 수준이다. 합병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장은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작년까지 빌라 거래 시장이 위축되면서 가격도 많이 내렸다”며 “아파트 가격 대비 빌라 가격의 매력이 커지면서 빌라로 수요가 일부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도 지난달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소형 주택을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특례

를 적용하는 등 빌라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다만 7월 빌라 매수세는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반짝 효과’일 수 있는 만큼 실제 시장 회복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아파트·빌라 실거래가지수가 모두 상승하며 7월 서울지역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도 전월 대비 2.59% 올라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2021년 1월(2.59%)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다만 최근 대출규제 여파로 8월 실거래가지수 상승 폭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백민정 기자

일산 용적률 169%→300%… 1기 신도시, 14만가구 늘어난다

(분당·평촌·일산·중동·산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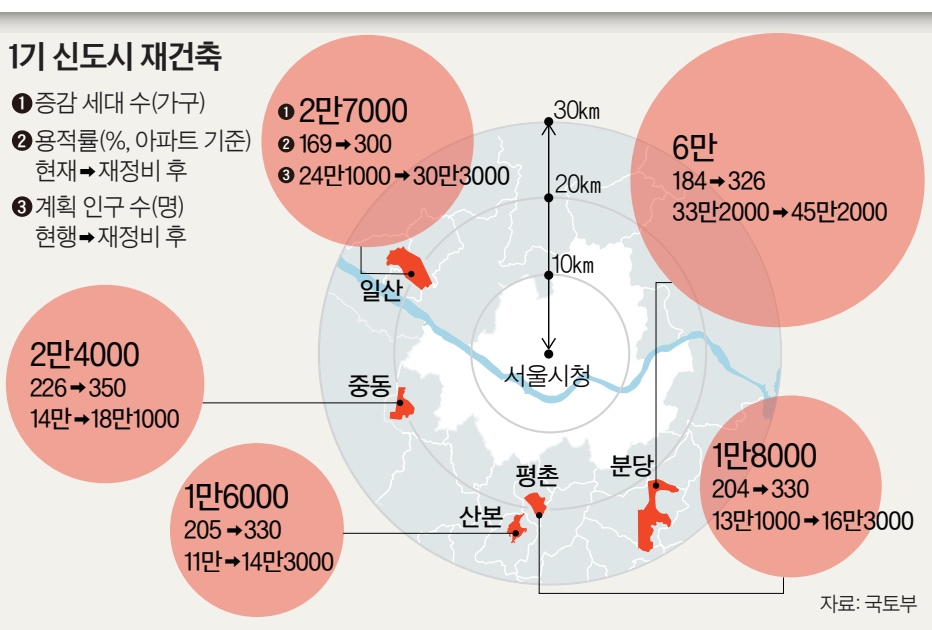
1기 신도시(분당·평촌·일산·중동·산본) 재건축의 밀그림이 모두 그려졌다. 현재 39만2000가구가 거주하는 1기 신도시가 재건축을 통해 2035년까지 53만7000가구 규모로 확대된다. 14만5000가구(정비사업 3000가구 포함)가 추가 공급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일산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로써 지난달 14일 중동(부천시)·산본(군포시), 30일 평촌(안양시), 이달 10일 분당신도시(성남시)의 기본계획이 공개된 데 이어 1기 신도시 5곳의 기본계획이 모두 제시된 것이다.

일산 신도시는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공원 도시 일산”을 비전으로, ▶생동감 있는 녹색공원 도시 ▶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 ▶활력있는 자족도시 ▶쾌적한 정주 환경 도시 ▶살기 좋은 복지문화 도시라는 다섯 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 제시된 일산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아파트 300%, 주상복합 360%다. 기준용적률은 계획인구에 따른 인구 증가를 수용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 유지가 가능한 적정 개발밀도를 말한다.

일산의 경우 아파트를 기준(300%)으로 분당(326%)·평촌(330%)·산본(330%)·중동(350%)보다 낮은 용적률이 제시됐는데, 이는 현재 평균 용적률이 169%로 5개 1기 신도시 가운데가



1기 신도시 재건축 밀그림 완성

일산 주상복합은 용적률 360% 가능

2035년엔 5곳 총인구 124만명 예상
선도지구 공모, 예정대로 27일 마감

장 낮은 영향이다. 이를 통해 일산신도시는 현재 10만4000가구(인구 24만명) 규모에서 2만7000만 가구가 추가

된 13만1000가구(30만 명)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1기 신도시가 재정비되면 인구수는 현재 95만4000명에서 124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분당의 경우 현재 184%인 용적률을 326%로 높여 2035년까지 5만9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평촌은 용적률을 204%에서 330%로 높여 1만8000가구를, 산본은 용적률을 205%에서 330%로 높여 1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중동신도시의 경우 226%인 용적률을 350%로 올려 2만4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5곳의 기본계획안은 현재 진행 중인 주민공람을 거친 뒤 향후 지방의회 의견 청취, 노후계획도시 정

비 지방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의 절차에 따라 올해 안으로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국토부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안’은 한 달간의 의견조치를 종료했으며,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국토부의 기본 방침에 따라 각 지자체가 마련한 기본계획에 맞춰 진행된다.

한편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는 예정대로 오는 27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모 제안서를 신청받고 있다. 선도시별로 선도지구 선정 경쟁이 막판까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지자체별로 선도지구 지정 기준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인데, 여기에 지역 여건에 따라 각 지자체가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분당신도시의 경우 현재 선도지구 경쟁에 뛰어든 단지가 25~30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 선정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착수, 2025년 특별정비 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김원 기자

▶ 2면 ‘환자손’에서 이어집니다

반대로 채권은 환해지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채권 투자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받기 위해 하는 투자다.

▶환오피 환해지 ‘반반’ 전략(육동회 KB자산운용 실장)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이 오를 거라고 판단하고 S&P500에 투자한다. 하지만 달러는 변동성이 크고 시기에 따라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환오피와 환해지를 반반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결국 미국 주식을 산다는 건 미국 기업과 달러에 동시에 투자한다는 의미인데,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헤지 상품을 통해 달러에는 절반만 투자해 변동성을 어느 정도 회피하는 것이다.

김연주 기자



QR코드를 스캔해 The JoongAng Plus에 접속하면, 돈이 되는 ‘머니랩’의 보다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미래의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융자”

- 주택융자 • 자영업자융자 • NON-QM
- DSCR융자 • 외국인융자 • 상업융자

VA/MD/DC/TX 외 12개주 가능

EMET
MORTGAGE

(NMLS: 1301672)
7619 Little River Tnpk, #320, Annandale, VA 22003

+1.703.629.2866 Sylvia.son@emetmortgage.com

An Equal Housing Opportunity Lender. Copyright 2015 - 2021, Emet Lending Group, Inc. DBA Emet Mortgage headquartered at 2601 Saturn St., Ste. 200 Brea, CA 92821. NMLS ID # 1301672. Toll Free # 866-777-3638. All rights reserved. Restrictions may apply. All loans are subject to credit, underwriting and property approval guidelines. Nationwide Mortgage Licensing System (NMLS) Consumer Access Web Site: www.nmlsconsumeraccess.org.



Sylvia E Son

Sr. Loan Officer (NMLS: 2315308)



THE
CENTURION
GROUP

THE CENTURION GROUP
TTR | Sotheby's
INTERNATIONAL REALTY



차별화된 Sotheby's 만의 격조 있는 서비스를 지금! 경험 하세요.



Sylvia Son

Preferred Lender(MLO 2315038)
+1.703.629.2866
Sylvia.son@emetmortgage.com



David Park

Managing Principal
+1.646.644.2564
dpark@ttrsir.com



Jenny Park

Operations Manager
+1.858.692.4774
jennypark@ttrsir.com

계속되는 치열한 매물시장!
Sotheby's 팀은 바이어님들을 위해 오늘도 집을 짓고 있습니다.
럭셔리 콘도미니움,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000,000
콘도, 12유닛, 넓은 주차장, 12,411 SqFt



\$9,200,000
싱글홈, 방 5, 화장실 8, 8,132 Sq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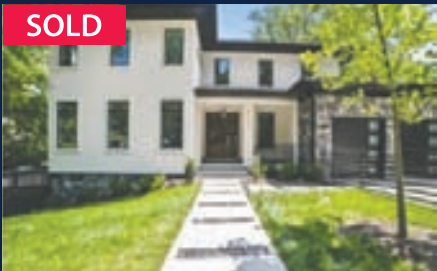
\$4,776,000
콘도, 6유닛, 넓은 주차장, 12,180 SqFt



\$3,804,900
콘도, 12유닛, 7,865 Sq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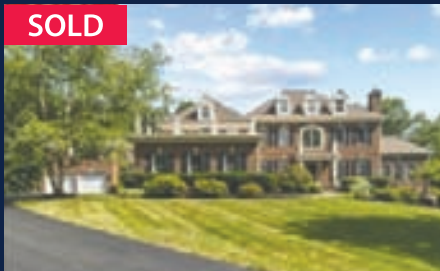
LIST: \$2,390,000
SOLD: \$2,285,000
싱글홈, 방 6, 화장실 8, 4,821SqFt



LIST: \$2,219,000
SOLD: \$2,160,000
싱글홈, 방 6, 화장실 6, 3,707SqFt



LIST: \$2,188,888
SOLD: \$2,200,000
싱글홈, 방 6, 화장실 6, 4,360SqFt



LIST: \$1,750,000
SOLD: \$1,700,000
싱글홈, 방 5, 화장실 8, 6,804SqFt

오픈하우스 일정: 824 18th st NE, Washington D.C., 20002. 매주 일요일 2pm- 4pm.
웹사이트: <https://www.dmvcenturiongroup.com/>



LIST: \$3,199,000
SOLD: \$3,060,000
싱글홈, 방 6, 화장실 7, 4,075SqFt



LIST: \$2,250,000
SOLD: \$2,125,000
싱글홈, 방 7, 화장실 8, 4,887SqFt



LIST: \$2,219,000
SOLD: \$2,160,000
싱글홈, 방 6, 화장실 6, 3,707SqFt



LIST: \$1,850,000
SOLD: \$1,892,476
싱글홈, 방 6, 화장실 8, 5,195SqFt



LIST: \$1,150,000
SOLD: \$1,150,000
싱글홈, 방 5, 화장실 7, 4,505SqFt

부동산 가이드



애니 윤
콜드웰뱅크 베스트 부동산

첫 주택 장만 절차

지역 선정과 주택 유형 결정 선행되고
사전 용자 승인과 에이전트 계약해야

2024년이 어느덧 9월로 접어들었습니다. 8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부동산 에이전트 커미션 규정으로 인해 바이어들의 움직임이 다소 둔화되었지만, 9월에 금리가 소폭 하락하면서 오렌지카운티의 집값은 여전히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기고에서는 최근 바뀐 커미션 제도를 포함하여 주택 구입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및 주택 형태 결정하기

먼저 주택 구입을 고려할 때, 예산이 확정되었다면 위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려면 출퇴근 거리를, 자녀가 있다면 학군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집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배우자와 가족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주택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에는 싱글하우스, 아파트, 콘도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이 존재합니다. 본인과 가족의 생활 스타일에 맞는 주택 형태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예산 범위 확인하기

미국에서 대부분의 주택 구매자는 모기지론을 이용합니다. 특히 금리가 높은 현시점에서는 모기지 계산이 더욱 중요합니다. 모기지 대출의 승인 여부는 다운페이먼트, 소득, 그리고 신용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이 요소들을 점검하고 모기지 대출 가능 금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집 구입 1년 전에는 자동차 구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이전트 선정하기

미국에서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합니다. 지역에 경험이 풍부한 리얼터를 선택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주택 구입의 경우, 에이전트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전 용자 승인받기 (Pre-approval)

사전 용자 승인(Pre-approval)은 모기지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승인 금액이 실제 대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용자 승인을 받지 않고 집부터 찾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전 용자 승인이 없으면 오퍼를 넣을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을 찾기 전에 사전 용자 승인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집 찾기 및 에이전트 계약

사전 용자 승인을 받은 후에는 본격적으로 주택을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부동산 법에 따르면, 바이어는 집을 보기 전에 바이어 에이전트와 'Buyer Representation and Broker Compensation Agreement'에 서명해야만 주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픈하우스에 참석할 경우에도 리스팅 에이전트가 제시하는 서류에 에이전트 도움 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미셸 정
뉴스타부동산
LA 명예부사장

젊은 주택 구매자를 위한 조언

부동산 구입, 부 축적도 가능하고 세제 혜택도
관리 상태 좋은 집 선호하면 신축과 콘도 고려

직장생활을 시작한 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면 다운페이먼트를 마련하여 집을 사서 이사하게 된다. “난 집 필요 없어. 지금처럼 시설 좋은 아파트에서 편하게 사는 게 좋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집 사는 친구들이 은근히 부러워진다.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평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 모든 집이 크고 잘 생겨야 좋은 집은 아니다.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좋은 집이다. 첫 집의 경우 판단 실수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오르기 마련이다. 일단 부동산을 산 것만으로도 성공한 셈이다.

고민만 하다가 렌트를 살고 있다면 매년 렌트비는 조금이라도 오르게 되고 내려갈 일은 없게 된다. 내 집을 사면 아파트 렌트비를 내는 것처럼 매년 고정 페이먼트를 내지만 이때 원금도 함께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조금씩 목돈이 모이고 있는 셈이다. 이자가 높다고 걱정하는 바이어가 있다면 일단 맘에 드는 집을 사고, 이자율이 좋아지면 재융자를 추천한다. 페이먼트를 더 줄일 기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구매는 세금 공제 혜택 차원에서든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젊을수록 무조건 번듯한 집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경우는 본인들의 능력보다 훨씬 좋은 집을 선호한다. 한 달에 인컴이 1만 달러라고 가정하고 버는 돈을 다 써버

리는 바이어다.

고가의 자동차를 타고, 카드를 많이 사용하며, 고정지출로 1만 달러보다 더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아직은 20대이기 때문에 돈 관리를 잘못 하는 경우다.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급 아파트에 살지언정 맘에 안 드는 첫 집은 안 사겠다고 고집한다.

하지만 주위에 똑똑한 20대들도 많이 있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집을 선택하는 바이어이다.

또 젊은 바이어들은 관리 수준이 높은 좋은 집을 선호한다. 이때는 신축 또는 오래되지 않은 콘도 구매도 좋은 선택이다. 콘도는 하우스와 비교하면 가치가 많이 오른다.

주택소유자협회(HOA)가 건물 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적다. 관리비가 아깝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다. 단독주택을 살아도 관리비는 필요하게 마련이다. 콘도는 여행 등으로 집을 오래 비워도 치안이 보장되고 향후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도 렌트가 용의하다.

첫 집은 되도록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살 당시에는 비싸거나 힘들게 샀을지는 몰라도 몇 년이 지나면 더 이상은 예전 가격에 부동산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평생 제일 싸게 산 집이 첫 집이다.

이렇듯 집은 오랜 친구와 지인 가족만큼이나 중요한 삶의 보금자리이다. 내가 아침에 눈 뜰 때 보호받고 편안한 내 집이 있다는 것이 참 든든하다.

부동산 이야기

렌트 하우스 수리

주택 투자자는 수리비에 대한 우려 커
비용 부담 주체는 케이스에 따라 판단

소규모 아파트나 일반 주택에 렌트 투자를 하려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제일 많이 걱정하는 건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테넌트가 렌트비를 제대로 낼까.

둘째, 집을 깔끔하게 사용할 테넌트를 선택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셋째, 고장이 나면 누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렌트비를 제대로 낼 테넌트는 사전에 렌트 신청서(Rent Application), 테넌트의 수입·지출 내역, 은행 명세서, 크레딧 리포트 등을 통해 조사해서 좋은 테넌트를 선정하면 된다. 집을

깔끔하게 사용할 테넌트를 뽑으려면, 집을 보여줄 때 테넌트와 그 가족을 면담하며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고장 수리 문제는 테넌트가 거주하는 동안 계속해서 집주인의 신경이 쓰이게 만든다.

렌트 계약서에는 테넌트가 고장이나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서면으로 집주인에게 보고해 수리를 요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수리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테넌트가 사용하다가 발생한 고장이 ‘일반적인 사용(Ordinary wear and tear)’으로 인한 것이라면,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테넌트가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고장이 났다면, 그건 집주인이 고쳐줘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엌이나 화장실 배관이

막히는 경우는 지하에 나무뿌리가 원인인 이상, 테넌트가 수리비용을 내야 한다.

이외에도 화장실이나 부엌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거나, 차고 문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집주인이 수리하는 게 맞다. 유리창 블라인드가 부서지거나, 문고리가 망가지거나, 샤워 유리문 연결 부분이 약해져서 떨렁거리는 것도 일반적인 사용으로 보고 집주인이 수리하는 게 맞다. 특이한 경우는 케이스마다 따져서 집주인이 부담할지 테넌트가 부담할지 결정해야 한다.

몇 년 전 테넌트한테 전화가 와서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했다. 그래서 가보니 거실 바닥에서 냄새가 나고 있었다. 1층 거실 바닥은 라미네이트 마루로 깔려 있어서 물이 넘쳐도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스며들어 땅으로 가기 때문에 냄새가 날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상해서 플러머를 불러 마루를 뜯어보니, 그 아래 예전에 깔렸던 비닐장판이 그대로 남아 있

고 그사이에 물이 고여 부패한 냄새가 나고 있었다. 짐작컨대, 이전 집주인이 라미네이트로 업그레이드하면서 비닐을 벗기지 않고 그대로 덮어 깔아 두었던 것 같았다.

테넌트는 몰드(Mold) 때문에 큰일이라며 바로 호텔로 나갔고, 그 후에 서둘러 비닐을 제거하고 새 마루를 깔았던 기억이 난다. 테넌트에게 물어보니 며칠 전에 식기세척기에서 물이 넘쳤다고 했다. 마루 상태를 완전히 회복시켰지만,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테넌트의 식기세척기 사용 문제라면 테넌트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물이 흘러 바닥에 고인 건 테넌트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집주인이 책임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고장 수리비용의 주체를 정하는 건 때때로 까다롭다. 따라서 고장에 대한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따져봐야 한다.

제이슨 성·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

REALTY1
MARYLAND

리얼티 원 부동산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추천 주택 리스팅

SOLD Bowie \$645,000 싱글홈, 방4, 화4, 차고2	UNDER CONTRACT Edgewater \$575,000 싱글홈, 방3, 화2, 0.45에이커
UNDER CONTRACT Elkridge \$950,000 싱글홈, 방5, 화3.5, 차고2	UNDER CONTRACT Ellicott City 55+ Luxury \$425,000 콘도, 방2, 화2, 1,438sf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책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Elkridge 월 \$2,400 타운홈 방3, 화3	RENTED Sliver Spring 월 \$3,500 타운홈	Germantown 월 \$2,100 콘도 방2, 화2	Hanover 월 \$2,650 타운홈 방3, 화3, 차고1	Germantown 월 \$2,000 타운홈 방2, 화3 (지하실 제외)	Glen Burnie 월 \$1,750 콘도 방2, 화1
---	--	--	---	--	---

악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9월 **HOT** 리스팅

바이어들의 희소식 , 모기지 이자율이 많이 내렸습니다.

60만불 대출시 30년 융자 월납부금 \$3600 + 세금 + 보험
50만불 대출시 30년 융자 월납부금 \$3000 + 세금 + 보험
40만불 대출시 30년 융자 월납부금 \$2400 + 세금 + 보험

부동산 관련 모든 문의는 북버지니아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 에이전트, 비키리 부동산에 문의 해 주세요.

주택 매매 / SALE

페어팩스

타운홈 방3+화3, 차고1 **\$70만불대**
타운홈 방3+화3, 차고2 **\$80~\$85만불대**

센터빌

타운홈 방3+화3 **\$45만불~\$60만불**
타운홈 방3+화3, 차고1 **\$60만불대**
타운홈 방4+화3, 조지메이슨 대학 부근 **\$630,000**

급매



\$56만

알링톤 콘도
방2개 2층짜리
교통좋은 매트로와 인접
타운하우스식 콘도

임대

애쉬번 타운홈 \$3500
방3+화3차고 2
즉시 입주가능



비엔나 \$3500
방3+/화3 차고 1
즉시 입주가능



락빌 \$3,500
방3+/화3 고 1



\$69만

우드브리지
니본 랜딩 싱글홈
방4+ 화3 차고2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비키리 부동산

전화 **703-231-5572**
문자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서봉총 금관 모시고 싶다, 빅3 박물관 ‘특별한 초대’

(미국)

시카고 미술관서 K유물 특별전

11월 한국실 3배로 확장하며 전시 “신라 금관, 동서양 교류사의 상징” 조선 책가도·청자·백자 함께 초대 “K유물, 해외전시 인력 보강 필요”

시카고 미술관(AIC)이 오는 11월 한국실을 3배로 확장 개관하면서 개최하는 대규모 특별전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신라 서봉총 금관(보물)이 선보인다. 신라 금관의 해외 나들이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이자 국립박물관 소장 국보·보물 5점을 통틀어서도 역대 10여 차례에 불과하다. 해외 박물관들의 한국 유물 ‘러브콜’이 강화되는 흐름에 우리 쪽 전폭 지원이 맞물린 결과다.

국립중앙박물관 정명희 전시과장은 24일 “시카고 미술관의 한국실 재개관 전시에 국중박 소장품 14건 24점을 대여하는데 여기에 서봉총 금관 및 금제 허리띠가 포함됐다”면서 “메트로폴리탄, 보스턴미술관과 함께 미국 3대 박물관에 속하는 시카고의 위상을 고려한 끝에 결정됐다”고 말했다.

1926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의해 발굴된 서봉총은 당시 스웨덴 황태자 구스타프 아돌프가 발굴현장에 참여한 바 있다. 스웨덴을 뜻하는 ‘서’와 금관 봉황 장식의 ‘봉’이 합쳐져 서봉총이란 이름이 붙었다. 고고학을 전공한 황태자가 일본 방문길에 경주



오는 11월 시카고미술관에 나들이할 신라 서봉총 금관.

[사진 국가유산청·국립중앙박물관]

고분 발굴 소식에 관심을 보이자 일본 측이 그에게 금관을 건져 올릴 기회를 ‘의전 쇼’로 선사했다. 높이 30.7cm, 지름 18.4cm의 금관은 나뭇가지와 사슴 뿔 모양의 장식에 봉황 세 마리가 덧붙여진 화려하고 정교한 자태다.

유럽인이 발굴에 참여했다는 이색 스토리까지 덧붙여져 서봉총 금관은 해외에서도 인기를 끈다. 1957년 말 사상 처음으로 열린 한국 문화제 국외 특별전(‘한국 국보전’) 때도 금관총 금관(국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국

보) 등과 함께 초청돼 워싱턴 등 미국 8개 주요 도시를 돌았다. 이번이 여섯 번째 해외 나들이다.

삼국시대 금속유물 전문가인 이한상 대전대 교수(역사문화학)는 “신라 금관은 독특한 형태에다 고대 동·서양의 실크로드 교류사를 보여주는 상징적 유물”이라면서 “근대 서구와 한국의 만남이란 의미까지 있어 해외 학계도 관심이 크다”고 설명했다. 시카고 미술관이 사실상 처음으로 대대적인 한국 유물 특별전을 열면서 서봉총 금관을 필수 초청 목록에 포함시킨 이유다.

한국 컬렉션 3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 시카고 미술관은 이번 특별전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조선시대 책가도, 청자, 분청사기, 백자 등도 선보인다. 일부는 특별전 후에도 장기 대여(2년) 형태로 남아 한국실을 꾸밀 예정이다. 앞서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수년간 해외 박물관의 한국실 개관·관리에 인력·예산을 지원하면서 한국 유물에 대한 이해가 커진 데다 각 박물관이 소장한 지 수십년이 된 한국 유물을 보존처리하는 과정에서 기관 간의 교류가 대폭 늘어났다.

일례로 미국 피바디에섹스 박물관의 경우 ‘평안감사도과급제자환영도’ 병풍 1점과 조선 신부 전통 예복인 ‘활옷’ 1점을 국내에서 보존처리 중인데 내년 확대 개편하는 한국실에 이를 전시할 계획이다.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박선미 부장은 “미국 데이튼미술

관의 ‘해학반도도’는 우리 측 보존처리 과정에서 국적이 확인돼 현지에서 관련 특별전까지 열기도 했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재단이 벌여온 국외문화유산의 보존·복원 및 활용사업에 따라 10개국 30개 기관 56건에 총 25억 6400만원이 지원됐다고 한다.

유학과·교포 출신 한국인 큐레이터들이 해외 박물관에 뿌리를 내리면서 한국과 교류가 활성화된 측면도 있다. 시카고 미술관의 경우 2020년부터 지연수 큐레이터가 한국실 전담으로 근무하고 있어 ‘어느 수집가의 초대(고이건희 회장 기증품 특별전)’의 순회 전시가 성사됐다. 국내에서 100만명 이상 관람한 ‘이건희 기증 특별전’은 내년 11월 미국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NAAM)을 시작으로 2026년 시카고 미술관에서 열리고 이후 영국으로 건너가게 된다.

해외 교류전시가 늘어남에 따라 체계적인 모니터링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개최한 한국 민속 특별전은 10여건의 유물이 잘못 표기돼 당시 전시에 협조한 기관들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장은 “한류·대중문화를 넘어 한국 유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데다 공공외교 일환으로 전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한국실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강혜란 문화선임기자

K골퍼 4총사 출격…미국 독무대 이번엔 어렵었다

미국과 세계연합팀(인터내셔널)의 남자 골프 대항전인 프레지던츠컵이 26일부터 나흘간 캐나다 몬트리올의 로열 몬트리올 골프 클럽에서 열린다.

1994년 시작된 프레지던츠컵은 유럽을 제외한 세계연합팀이 미국과 맞붙는 대회다. 2022년까지 2년마다 14차례 대회가 열리는 동안 미국이 12승 1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특히 2005년부터는 미국이 9연승을 기록 중이다.

미국 샬럿의 웨일 할로 골프장에서 열린 지난 2022년 대회 당시엔 미국이 17.5-12.5로 이겨 우승을 차지했다. 인터내셔널 팀은 1998년 외엔 미국에 승리한 적이 없다. 무승부를 기록한 것도

2003년 한 번뿐이다.

인터내셔널 팀은 올해 한국 선수들을 앞세워 반격을 노린다. 올해 프레지던츠컵 인터내셔널 팀엔 임성재, 김주형, 안병훈과 김시우까지 총 4명의 한국 선수가 출전한다. 임성재, 김주형, 이경훈, 김시우가 나섰던 2022년에 이어 또다시 4명의 한국 선수들이 나선다.

올해는 임성재와 김주형, 안병훈이 세계랭킹으로 자동 출전권을 따냈고, 김시우는 마이크 위어(캐나다) 단장의 추천 선수로 합류했다. 2년 전인 2022년 대회에서 3승을 책임진 김시우, 강렬한 데뷔전을 치렀던 김주형의 활약이 올해도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024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까지 진출한 임성재와 안병훈의 실력도 만만찮다.

한국 선수 3명 외에 세계랭킹으로 자동 출전권을 따낸 선수는 마쓰야마 히데키(일본)와 애덤 스콧, 제이슨 테이(이상 호주)가 있다. 이밖에도 코리 코너스, 테일러 펜드리스, 매켄지 휴스(이상 캐나다), 크리스티안 베자워덴하르트(남아프리카공화국), 이민우(호주)가 인터내셔널 팀에서 한국 선수들과 호흡을 맞춘다.

올해도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미국이 앞선다. 세계랭킹 1위이자 2024시즌 PGA 투어 페덱스컵 챔피언에 빛나는

스콧티 셰플러를 필두로 잰더 쇼플리(2위), 콜린 모리카와(4위), 윈덤 클라크(6위), 패트릭 캔틀레이(9위)까지 세계 톱10에 5명이 포진했다. 인터내셔널 팀에선 7위 마쓰야마가 유일하게 세계랭킹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세계랭킹 11위 사히스 시갈라도 세계랭킹을 통해 자력으로 미국 팀에 합류해 프레지던츠컵 데뷔전을 앞두고 있다. 또 키건 브래들리, 샘 번스, 토니 피나우, 브라이언 하먼, 러셀 헨리, 맥스 호마가 짐 퓨릭 단장의 추천 선수로 합류했다.

대회는 첫날 포섬(2인 1조로 팀을 이뤄 1개의 공을 번갈아 치는 방식), 이틀째 포볼(각자의 공으로 경기해 더 좋

은 성적을 그 팀의 해당 홀 점수로 삼는 방식) 경기가 진행되며, 사흘째는 포섬과 포볼이 모두 열린다. 마지막 날에는 12명이 일대일로 맞대결하는 싱글 매치 플레이가 이어진다.

임성재는 24일 PGA 투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선수들은) 다 강하지만 나는 마지막 날 싱글 매치 플레이에서 잰더 쇼플리랑 겨뤄보고 싶다”고 밝혔다. 세계랭킹 2위 쇼플리는 올해 메이저 대회인 PGA 챔피언십과 디오픈에서 우승한 미국 팀의 핵심 전력이다.

프레지던츠컵에 세번째로 출전하는 임성재는 “너무 기쁘고 기대된다. 팀원들과 호흡을 맞춰 다시 한번 승리를 하는 것이 목표”라며 “우리 열두 명의 팀원은 이기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밝혔다.

고봉준 기자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고객이 많이 찾는 구글로컬 검색때..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저렴한 비용

2.편리한 플서비스

3.말을 수 있는 회사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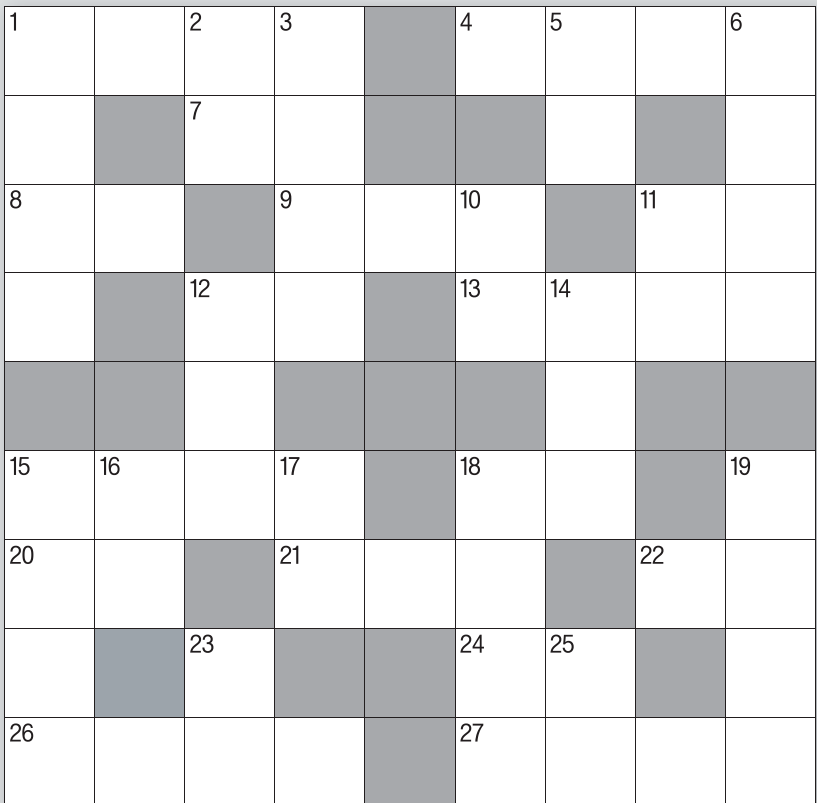
Bonnie: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보니: 숙제 다 끝냈니?
Michelle: Yes I did. It was a snap.
미셸: 예 다 했어요. 아주 쉬웠어요.
Bonnie: What did you do after school today?
보니: 오늘 학교 끝나고 뭐했니?
Michelle: I stopped by the music store.
미셸: 악기점에 잠시 들렸어요.
Bonnie: Oh? What did you do there?

보니: 그래? 거기서 뭐했는데?
Michelle: I'm thinking about taking up the saxophone.
미셸: 색서폰 배울까 생각중이거든요.
Bonnie: The saxophone? What brought this on?
보니: 색서폰? 왜 색서폰 배울 생각이 들었는데?
Michelle: One of my classmates was playing a CD during lunch and it just sounded great.
미셸: 같은 반 친구가 점심 시간에 CD를 틀었는

데 소리가 멋져서요.
Bonnie: Saxophones are expensive you know.
보니: 있잖아 색서폰은 비싸다.
Michelle: I can rent one for a while.
미셸: 잠시 대여할 수도 있어요.
기억할만한 표현
▶ (something) is a snap: (무엇이) 아주 쉽다.
“The cake was a snap to make.” (케익 만드는 건 아

주 쉽습니다.)
▶ stop by (a place): (어떤 곳에) 잠시 들르다.
“I have to stop by the post office and buy some stamps.” (우체국에 잠시 들러 우표를 좀 사야합니다.)
▶ what brought this on?: (어떤 일이) 왜 그렇게 된 거야?
“You're quitting your job? What brought this on?” (직장을 그만 댔다고요? 왜 그만 뒀어요?)

낱말퀴즈



가로열쇠

(1)비행기를 싣고 다니는 배. ~은 바다의 요새이며, 엄청난 공격력을 갖춘 이동 공군 기지라고 할 수 있다 (4)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생□□□ (7)녹을 문질러 닦는 데에 쓰는 것. 빼빼는 비표준어이죠 (8)장식으로 손가락에 끼는 고리. 위쪽에 보석을 박거나 무늬를 새겨 꾸미기도 한다 (9)관공서에서 민간에게 알리는 내용이 있는 서류. 납세 ~ (11)사람이나 동물의 시체가 썩지 않은 채로 현재까지 보존된 것 (12)배를 땅에 대고 김. 높은 ~, 낮은 ~ (13)둥둥 열려 주고 싶을 정도로 예쁘고 재롱스러운 아기 (15)돼지고기의 횡격막과 간 사이에 있는 살. 쫄깃하게 씹히는 맛과 향미가 좋죠. 향구에 날아다니는 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18)짐승을 잡아서 받은 피. 숙취로 괴로울 때 ~로 끓인 해장국이 그만이다 (20)지각이 흔들리는 일 (21)낙시꾼의 발명 (22)두부 찌꺼기 (24)같은 학교를 나중에도 나온 사람 (26)형과 아우와 언니와 여동생 (27)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가게 마련임. 나는 오늘날까지 ~의 신념 하나로 버티며 살아왔대네. □□귀□

세로열쇠

(1)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 보통 있는 예사로 운 일. □다□□ (2)피를 써서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 남을 도와 피를 내는 사람 (3)잔뜩 먹고 배를 두드림. 먹을 것이 풍족하여 즐겁게 지냄 (5)수업을 꾸음 (6)날날의 질. 부서진 질의 부스러기. 물에 빠지면 이것이라도 잡조 (10)본부인이 아닌 여자나 첩에게서 난 아들과 그 자손. 홍길동전은 ~에 대한 차별 문제를 다룬 작품이다 (11)길이나 집을 잃고 헤매는 아이 (12)어린이의 작은 이불. 덮고 깔거나 어린아이를 업을 때 쓴다 (14)돼지감자. 행동이나 사고방식 따위가 너무 엉뚱한 사람. ~처럼 난데없이 무슨 소리야 (15)선이 곧게 나가지 않고 -의(지)자 모양으로 꺾여 나간 모양. □□자□ (16)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모두 다 팔려 동이 남 (17)그릇 따위를 엮어 놓기 위하여 부엌의 벽 중턱에 드린 선반 (18)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사사로운 일은 뒤로 미룸 (19)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마음.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이다. 인□□□ (23)큰 절에 딸린 작은 절 (25)부부로서의 짝. 배우자

스도쿠

		7	8	6		5		1
						4	7	
4	1				3		8	
3		4						9
			4		9	6		8
	6	5			7		2	
8		3	5		1		6	7
			3	4			9	
1						8		3



자료제공=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3	4	8	9	2	6	5	1
5	6	1	8	4	2	7	9
2	9	2	1	6	5	3	8
4	2	3	7	8	1	5	9
8	5	9	6	3	4	1	2
6	1	7	5	2	9	8	3
2	8	6	3	5	7	9	4
9	7	4	2	1	6	8	5
1	3	5	4	9	8	7	2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방법 Check ☐ Bill ☐ Credit Card ☐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 Master ☐ Amex ☐ Discovery ☐ 카드 번호 EXP. DATE: / CVS: month yea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사업보험 • 생명보험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THE SIXTH SENSE

식스센스

오늘의 주제 미녀

이상신 · 국종록 · 고리타 · 병수씨 · 손준혁 · 장우혁 · 양영순 · 메가썬킹

미녀도

크흑.. 이제 얼굴만
완성하면 되는데 도저히
미녀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아..

자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야겠소.

좋아, 마을에서 좋은 모델을 찾아봐야겠다!

두리번 두리번

오옷!! 남자, 그대야말로
내가 찾던 얼굴모델
이요!! 당장 나와 같이
갑시다!!!

아름 아름답

이런 얼굴이기
때문이지

그러니 얼른
옷을 벗으시오!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
이세요?!!

허걱

아까는 분명히 얼굴모델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진정
그리고싶은 얼굴은 바로..

헉..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1 새로운 크래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

9월

구인

광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사업체
매매

이준식 부동산

1. Seafood Carry Out
2. Pickup Store(bowie) \$30,000
3. Single House Rent \$3,200
(Catonsville).방4, 화장3+1/2

문의

301-768-1240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풀타임 & 파트타임
▶정규직원 베네티트 제공
▶이중언어 우대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구인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 구매부 0명
◎ 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경험자우대

이력서:eni@enidist.com

문의

301-477-4710

LO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쉬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오솔길, 산길 걷기
●6마일/2시간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융자 경력
제인 최 융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융자/재융자
최저이자율 보장
융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융자/2nd 융자

긴급융자(차압 또는 급전),
노 인컴 융자, 외국인 융자,
상업용 융자 등
모든 융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
라이센스 교육 가능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Chantilly

SPECIAL EVENT
BUY ONE
WHOLE CHICKEN
GET ONE Free

571-752-6417

92Chicken
KOREAN STYLE

13966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51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13

독자가 **행복** 해진다!!

Kmediarods.com

① 위싱턴 중앙일보

메릴랜드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MD Montgomery 및 PG County에서 식당장비세일즈 구합니다. 경쟁력있는 보수(커미션), PEPCO 등 정부보조프로그램 또는 다른 분야의 대면 방문세일즈 경험자, 경력자 우대 (기본급 및 경비 지원) 초보자 세일즈 트레이닝 및 각종 지원 제공 (Case by Case) edk.tre@gmail.com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바랍니다. 571- 332-2101(문자요망)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셔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경험많은 Handyman -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모집
- 업무: 사무직원 (서류관리 및 인보이스등)
- 시간: 주 32~48시간(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모집
- 업무: 현장 직원관리 및 입출고 관리
- 시간: 주 48~52시간
- 유경험자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 콜롬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경력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컷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메릴랜드 콜롬비아 410-961-3012

▶▶메릴랜드 JESSUP-화장품홀세일(NYX L'OREAL) 세일즈(남)구함/풀타임, 컴퓨터사용가능한 성실하고 참신한분. 410-852-1006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셔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식당/델리

▶▶엘리컷 시티 Cafe June 에서 풀타임 바리스타로 일하실분 유무경험자 443-310-9247

▶▶엘리컷시티 장수 설렁탕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캐쉬어/경험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스시 & Fried Chicken 파트/풀 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분 ▶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다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세탁소/기타

▶▶세탁소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 (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컷시티, MD)

▶▶픽업바느질하실분(파트타임)/엘리컷시티 410-926-3200

운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기요점정리,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 카톡ID: jimdong123
-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컷시티자동차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MD 아룬델빌 샴펜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 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연합감리회 위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각:성악전공/지휘전공음악전공(지휘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싱글/타운방 렌트

엘리컷시티-롯데에서 10분 거리/타운 홈 2층방/유포/가구일체/교통편리/남자분 원함 443-631-7866

▶▶엘리컷시티타운홈 렌트 매릴랜드 10Th Street. 방3개, 화장실/샤워 넓고 잘가꾸진 집. 롯데/한아름 5분거리 443-676-9225

실버스프링 두플렉스방2/부엌1/화장실1/출입문 별도 301-257-7126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 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군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조용/교통 편리한워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로근처싱글홈 방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MD 실버스프링 Calverton교통편리),싱글홈,큰방,욕실,유포,인터넷,가구,금연, 301-648-2422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3-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세 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2.출입문별도. 부엌,욕실,거실등,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 마켓 5분거리)문자요망 202-985-919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1. 메릴랜드 자이언트엡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어시스턴스리빙에서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숙식가능

도깨비 척추신경 병원 직원 구합니다. 페어팩스/파트타임, 풀타임 / 이중언어 가능/dkbclinic@gmail.com 757-384-5757

▶▶1. LED Light 세일즈 2. Electrician 배우실분. 202-993-8870 (문자요망)

▶▶LORTON 헤어제품수입홀세일창고에서오전:고객오더접수오후:노던버지니아지역및메트로지역담당관리. 영어/불어 우대 이력서 jhintva@hotmail.com 703-864-6641 John Lee 문자요망

김서규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하실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서 가능합니다 경력자 우대 합니다. Resume : skim@skimcpa.com

ENI DIST, INC사무직 Columbia, MD 위치 *구매부 0명/영입지원팀 0명 -ERP/Excel 유경험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301-477-4010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우대(P&CLicense소지자)/신입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금휴가, 건강보험/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롯데플라자마켓 본사인 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인을 구합니다. ■모집부문: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본사 디자인실(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아난데일 공인회계사무실 경험자우대, Benefit, 영주권스폰서 가능함, 무경험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 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콘도 4채 매매 렌트수입 증음!

-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 Cash Only

AGENT 환영

문의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로광고내용보내실곳: kd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중앙일보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타임/ 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 유/무 경
험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JTBC -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
디직'을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근무조건: 풀타임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코디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버지니아 한의과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703-243-4251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와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폴/파트타임
유경력 어학/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u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703-850-1100/703-963-1234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폴/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식품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합니다.
연락처 703-712-7089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리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숙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
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헌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력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알렉산드리아 MATSUI 일식당에
서 풀타임 스키맨 구합니다!
703-888-6627 (MR. 노)

▶▶Honest Grill에서 파트타임
Host/Hostess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543-2320

▶▶텍사스도넛센터빌베이커보조구함(아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703-462-4349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이미용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토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폴/파트타임 이발사구함.
703-408-1119

세탁/얼터레이션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베킹, 프레스,
빨래/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즈로
판매. (컴퓨터, 얼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본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스톨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정비/바디샵

포드 강통벤 냉장됨, 18만, 12년,
굿 컨디션. \$8,500.
240-796-0093

▶▶자동차 정비 매케너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준메케닉,헬퍼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
클린)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기타/구인/청소

▶▶VA 스프링필드/페어팩스 지역.
밤청소 하실분
703 980 1917

골동품이조구진품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매가능, 일본물건도 있음.
240-796-0093

버크 테건도 사범 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홀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thco.com
▶571-549-6789

홀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
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 (폴/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집안일 도움주시고 운전 가능하신분 구합니
다. 월-금, 오후 3PM-7PM
센터빌 롯데부근입니다.
703 300 1048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홀맡아서해주실분
(703) 473 6022.

버지니아에 있는 꽃집에서 디자이너와
헬퍼를 구합니다. 유, 무 경력자 환영
240-393-2773

각 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써니 한)

파트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 남녀노소 환영.
703-424-8596

필그림유치원 교사 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 분. 유·무 경력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모두 가능하신 분
240-903-0777

싱글/타운하우스렌트

▶▶싱글홀 지하렌트 워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와쉬어,
66번가까운 페어팩스, 지하 출입문 별도
▶703-489-6926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홀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홀 렌트 \$3,500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스프링필드 싱글홀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 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군 좋은)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잡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가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 짜리) 사고저 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콘도 렌트

▶▶애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 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물값과 가스비 포함되
어있음). H-Mart 가깝음. 교통편리.
703-477-3114.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주5일 DELI
\$68,000
렌트\$3500 CAM포함.
주매상 \$5천
MD. PG카운티,
MGM에서 10분거리

703-395-3123
CoStar GROUP POWER BROKER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자녀들의 휴가,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아난데일 H마트 옆, 방/1, 가구완비, 남여 직장인/유포/\$800
703-350-1986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가음,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방렌트

▶▶타운하우스 방1/욕실/유포
센터빌롯데근처
571-970-8048

▶▶아난데일 아파트/한강위/여자분
원함/큰방+Full Bath+간단취사
571-217-7155

▶▶아난데일 H마트옆 방1/여자분 환영
703-505-5698

▶▶방 세놓음 맥클린 싱글하우스 아래층 방 3개 전체 리모델링했슴 직장인이나 학생구함 교통아주 좋음 워싱턴 실버라인 걸어서 7분에서 8분거리 타이슨코너 근처
703-307-2473

▶▶교통 편리한 아난데일
단독주택 넓은 지하방 렌트.
703-559-5607

센터빌 스톤로드 선상-타운홈 안방 + Full Bath 금연자/단기 렌트 가능
929-424-2221

▶▶센터빌 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영. 유포 \$800
▶703-489-6926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 세놓음
문자 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Annandale 방 렌트: townhouse
밝고조용한 윗층방 or workout
basement with a private bathroom,
마루, 유포함, 교통편리함 여자분 원함.
문자보내주세요.
571-345-8879

▶▶아난데일 노바 3분거리.
조지메이슨 대학 5분거리, 반지하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가능.
703-598-6087

▶▶1. 아난데일 한강식당뒤 싱글홈 방 렌트
돌침대/가구/화장실/ 즉시 입주가능
703-395-4380

▶▶첼틀리 타운하우스 반지하 워아웃
인텐넷, 가구, 가전, 주방일체 포함 \$900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571-429-2222

▶▶열린문 교회 근처
싱글하우스 방 세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조지메이슨 노바 5분거리
반지하 \$900/부엌/화장실/출입문 별도
/마루바닥/유틸리티 포함/문자요망
703-598-6087

Fairfax VA 비엔나전철역 근처 66도로
495도로 2분거리 직장인 환영
703-419-0337

▶▶싱글홈 지하렌트 조지메이슨 근처
워아웃, 방2, 거실, 화장실,
풀키친, 워셔어 드라이어
703-898-3838

Burke H-Mart 10분거리 2층 타운홈 취사,
가구 즉시 입주 가능 방 1 \$600 방 2 \$1000
여자분 한함/문자바람
703-678-7833

▶▶아난데일 예촌근처 반지하 전체
방1/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9-6275
▶▶아난데일 예촌 앞 출업문 별도
방1/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2-2033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단독주택 출입문 별도.
지하방 2부엌 거실 욕실등(문자요망)
202-985-9191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콘도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
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층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1.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4, 화4, 편리한 램블러 스타일
2.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
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펄목,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홈
위층 방 3개, 화 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 2개, 사무실, 화 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부동산/상업용 매매

▶▶앤지 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심해드립니다
571-550-7658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뛰는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Seafood 매매 Woodbridge VA
\$165,000. Open: Mon-Sat (6일 근무)
자기사업에 관심있는 분 연락주세요!.
703-967-3963

이준식 부동산
1.seafood carry out
2.pickup store(bowie) \$30,000.
3.single house rent(Catonsville)
\$3,200. 방4 화3, 1/2
▶703-768-1240

1. 마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펄목,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옹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DC.Beer&Wine Convenient
연매상:\$420,000./7Days. 포텐샬 큼
렌트: \$3500.가게: 1F=1000 +B=1000/sf
안전지역. Selling Price:\$150,000.+Stock
문의 : 571-242-3736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 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쎄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헬터 / · 시간: 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 클럽
▶703-939-5223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 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미트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 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매매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무빙세일 역 이민 가구 및 생활용품을 정리. 냉
동고, 컴퓨터, 옷장, 히터, 서랍장 외...
703-203-5177(3시 이후 전화요망)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
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송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가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
터넌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손사이드 / 메케니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나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 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
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 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 융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대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달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 냉장, 워크인 /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
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 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 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배우면서 일하실분/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 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 에어덕트 클리닝

토달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시스템,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폴청소,
응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다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세는 것
▶703-499-5984

이사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
지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 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
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사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햇랭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박-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뜰만 잔디 깎기/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설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일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전문
- 목수, 타일, 마루, 욕, 케비넷 샌딩 보수
- 핸디맨, 플러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반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백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콧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단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집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Dishwashers,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최상의 브러쉬 발크 에어덕트 크리닝 파워 폴청소 (덱,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한국산 Smart Curtain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LVT (Luxury Vinyl Tile) VCT (Vinyl Commercial Tile)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임업 벌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청은 자란 나무, 덩불,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벌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청

토지 개간

자란 들판 잔디 깎기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전 후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데이케어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 데이케어 드라이버
-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틀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기타 지역

매매

구인

주방장

알파 세탁소 에이전시

월매 26K, Net 11K 확실
특가 21만, 기후쾌적
안전, 성장지역, 썬belt, 좋은매물
주인은퇴, S.Riverside, CA지역
(213)249-1893 샘킴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Hello Town

구인, 자동차, 집
관심있는 정보를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소개해 드립니다!
(무료)

www.HELLOKTOWN.com
전화문의 213.368.2525

us.srotech.com

charcoal cedar

건식온돌 난방
진짜가 나타났다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 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박학박사 허위리

개인 / 비지니스 / 용자전문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집 모기지 페이먼트 월드신분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다산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나쁜크레딧 리퍼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야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달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703-8809, papaaaa.com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www.koreadaily.com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한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잠 못 이루는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중풍,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히노씨]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꽃맛
생대추
따러오세요..

개장일
9월 16일
월요일
(약 2주간)

No
농약
화학비료
살충제

생대추 가격
대추밭입장료

You Pick
\$5/LB
\$5/1명
단 10LB 이상구매시
1LB로 반환

건대추 11월부터 판매

신선 농원

2060 Darby St. San Bernardino CA 92407
농장개장시간 10시~5시 [일요일도 OPEN]

714-833-4988

청해김

안전 인증 최고 맛 최저 가격

전국 최저 김밥김/스시김

한국산 취급
중국산 취급

한국산
고급 POS 종이
(한솔제지 최고급)

식당용
고급냅킨

고급 대나무 젓가락
커스텀 디자인 제작

한국의
청해김

한국의
청해김

한국의
청해김

50roll / Box

2Ply 3,000장

2,000개 / Box

ONE STOP 서비스로 POS 용지와 냇킨과 커스텀 젓가락 디자인 취급합니다.

213.985.4200
DOKDOSUPPLY.COM

■ 김밥용 전장김 (100장, 50장) ■ 일식당용 반장김 (200장, 100장)
청해김은 2015년부터 DOKDO SUPPLY 회사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고급김 Brand로 현재 남가주에서 500여 곳 및 전국 일식당 1,000여 곳에서 애용되고 있습니다.

특점 CENTREVILLE 싱글홈

방 5, 화장실 5, 1/2 5,908SqFt
5.38Acres 에 자리잡은 멋진
캠브릿지 스타일 싱글홈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근접

\$1,799,000



특점 FAIRFAX 타운홈

코스트코 근처, 2005년도 2 차고,
방3개, 화장실3 1/2, 3,220sq
잘 관리된 밝고 환한집

\$800,000



특점 FAIRFAX 타운홈

4층 구조 엘리베이터 시설, 2 Car
Garage, 방4, 화장실 5 2013년
새로지는 럭셔리타운홈, 골프코스 전경

\$1,335,000



특점 WOODBRIDGE 타운홈

잘 가꾸어진 밝고 예쁜집,
업데이트된 나무마루, GREAT VIEW
BELMONT BAY COM, 방3/화3

\$625,000



특점 FALLS CHURCH 콘도

아난데일 5분 거리, "GREAT VIEW"
방2/화2/세탁기/리모델링한 9층

\$310,0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